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

< 요약 >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1
II. 해외건설 시장 및 기업 동향	36
III.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동향 ...	61
IV. 시사점 및 결론	75

확인 : 팀 장 이운관 (6255-5710)
lyk@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강정화 (3779-5327)
nicekang@koreaexim.go.kr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 요약 >

□ 2015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 성장한 8.8조 달러에 달할 전망

- 201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8.5조 달러로 추정되며, 주택분야가 3.2조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세계 인프라시장 규모는 2.7조 달러로 전체 건설수요에서 32% 차지
인프라 분야 중 도로·다리·항만 등 교통 분야가 1.28조 달러를 차지
- 산업용 플랜트를 포함한 非주택분야는 2.6조 달러로 산업용 플랜트 1.1조 달러, 오피스 0.4조 달러, 상업용 건물 0.58조 달러, 공공시장 0.48조 달러로 구성되어 있음.

□ 2018년까지 세계 건설시장은 연 평균 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세계 건설시장은 10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

- 2016년 세계 건설시장은 9.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10조 달러 벽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인프라시장은 2018년 3.7조 달러로 연평균 4.5%씩 성장할 전망
- 세계 플랜트시장은 2008년 이후 성장세가 2%에 불과했으나, 2014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하여 1.3조 달러 시장을 형성할 전망

□ 2015년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은 개도국시장이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지역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질 전망

-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개도국들의 인프라 투자가 2015년에도 양호할 전망
-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산유국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높으나, 사우디아라비아, UAE, 나이지리아 등 주요 산유국 건설시장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유로존 건설시장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 전망
 - 경기부양을 위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 중남미 지역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조할 전망
 - 중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은 올림픽 특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건설시장이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시장 역시 미국 경기혼풍에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1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8.5조 달러에 달하나 민간 건설기업들이 접근 가능한 해외건설시장¹⁾ 규모는 5,500억 달러 수준**

-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5,500억 달러로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불과
- 접근 가능한 시장이 6.5%에 불과한 이유는 주택 및 인프라 건설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민간 부분의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

□ **세계 건설산업의 민영화 바람으로 해외건설시장 규모가 2018년 8,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2018년까지 세계 건설시장은 연 3~4%의 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건설시장은 연 7% 이상 고성장세를 보일 전망
- 세계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는 불가피한 선택
 - 민영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외건설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이어질 전망

□ **2013년 기준 지역별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살펴보면 아시아가 27%로 최대 비중을 차지**

- 2009년 19%에 불과했던 아시아 지역의 해외건설 시장 비중이 2013년 27%로 증가
 -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한 상황이며,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가 타 지역대비 높을 전망

1) 해외건설시장 : 세계 건설시장 중 민간기업들이 접근가능한 시장을 뜻함

□ 2013년 기준 국가별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스페인 14.7%로 최대이며, 그 뒤를 중국, 미국, 프랑스 순

○ 스페인 기업들은 자국내 건설산업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과감한 해외 시장진출 전략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2년 이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건설강국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

○ 2012년 670억 달러로 세계 1위 해외건설 실적을 기록했던 중국은 2013년 790억 달러로 2위로 내려앉음.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순위는 6위로 전년대비 동일

□ 해외건설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세계 Top 250 건설회사 중 14개 국가에 86%인 216개사가 포진해 있음.

○ 2013년 기준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 특징을 살펴보면 국력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선진국 기업에 수주가 집중되어 있음.

○ 2013년 매출기준 세계 30대 건설회사의 국적을 살펴보면 유럽 14개, 중국 5개, 한국 5개, 미국 4개, 일본 1개, 브라질 1개

□ 2014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660억 달러를 기록

○ 2007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수주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1년 591억 달러, 2012년 648억 달러, 2013년 652억 달러를 기록

○ 2011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증가율은 3.7%에 불과하여, 같은 기간 해외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 10%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

□ 2014년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중동 313억 달러, 아시아 159억 달러, 유럽 67.5억 달러 순

○ 2014년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살펴보면 중동 47.4%, 아시아 24%, 유럽 10%, 중남미 10%, 북미 4.5%, 아프리카 3.3% 순

○ 우리나라 수주액의 40% 이상이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동지역 경제상황에 따른 수주 변동성이 큰 상황

□ 2015년 국내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560억 달러에 불과할 전망

- 국내 해외건설 수주의 40% 이상 차지했던 중동 지역 수주가 2014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250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13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 상황

□ 2014년 공종별 수주액은 살펴보면 플랜트 분야가 517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78%를 차지

- 2007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중 플랜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8% 수준으로 플랜트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 2014년 토목 수주액은 56억 달러로 8.4%에 불과하며, 건설 수주액은 49억 달러로 7.4% 불과
 - 세계 건설시장 중 플랜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남짓하나, 토목 및 인프라 시장은 70% 이상 차지하므로 토목 및 건설 분야 시장 개척이 필요

□ 2013년 국가별 건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건설경쟁력은 세계 7위 수준

- 국가별 건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3년 연속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
-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3~6위, 한국은 2012년과 동일한 7위를 기록하여,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강세가 여전히 지속

□ 가격경쟁력은 세계 4위권이나, 설계경쟁력은 미국 대비 절반 수준

- 가격경쟁력은 2011년 3위, 2012년 6위, 2013년 4위를 기록
 - 인도, 중국 대비 20% 이상 격차가 나고 있으며, 국내 건설 인건비 등을 고려해 향후 가격경쟁력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설계경쟁력은 2011년 19위, 2012년 10위, 2013년 19위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50%에 불과함.

□ 주력 수출산업인 플랜트산업 경쟁력을 살펴보면 최고 수준 대비 69%에 불과한 상황

-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0.3년에 불과하여 가격 위주의 수주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
- 자원개발 분야는 중국대비 4.5년 뒤쳐진 상황이며, 플랜트 전 분야에 걸쳐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우려가 존재
- 플랜트부문의 원천기술 확보 척도인 특허기술 경쟁력 역시 44.9%로 매우 저조함.
- 핵심 기자재의 경우 기술격차가 5년 이상, 세계시장 점유율도 10% 미만으로 낮아 국내 EPC업체들은 발주처의 요구, 기술력 차이, 또는 납기 등의 이유로 외국 선진업체로부터 조달

□ 해외건설시장을 놓고 기업간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

- 유럽 건설사들의 경우 정체된 자국시장의 탈출구로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유로화 약세로 인해 가격경쟁력도 높아진 상황
 -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시장인 중동지역에서 수주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강세지역인 중남미 및 아프리카 시장의 공략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음.
- 미국 건설사들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수익 분야인 환경 및 컨설팅 분야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AIIB(Asia Infra Investment Bank) 출범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 인프라 시장에 대한 공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
 - 우리나라와 기술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확대될 경우 수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

□ **국내 해외건설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기술경쟁력 확대와 지역다변화가 필요**

- 기술경쟁력 확보 및 수익 모델 확대 등의 산업고도화가 필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M&A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세계적으로 기획에서 운영까지 밸류체인 통합이 추세인 상황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은 시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취약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해외건설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스페인 기업들의 경우 M&A를 통해 기술력 확보, 공종다변화, 진출지역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함.
 - 중장기적으로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단시간내에 경쟁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M&A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해외건설산업은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변화 중이며, 금융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선진기업과 경쟁을 위해선 금융역량 확보가 필수적**

- 건설 프로젝트가 대규모화, 복잡화 되면서 전통적인 도급계약방식이 아닌 통합발주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간금융 조달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가를 성장성과 안정성을 기준을 고려할 때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유망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

- 아시아시장은 안정성이 취약하나 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
 -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경제개발에 따른 인프라 수요가 연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하지만 Country Risk가 큰 지역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
- 중동시장은 여전히 국내 건설사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이 가장 유망
-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시장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시장이 유망하나 선진 건설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시장도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고 있어 가장 유망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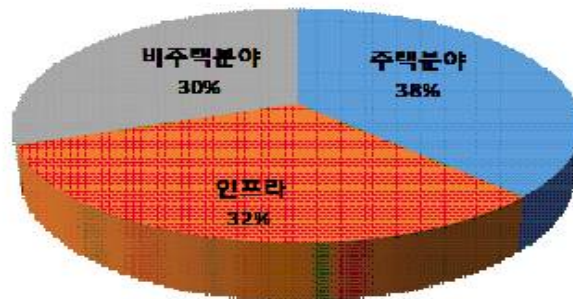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1. 세계 건설시장 현황

- 201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8.5조 달러로 추정되며, 주택분야가 3.2조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세계 건설시장은 주택, 인프라, 非주택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非주택 분야는 산업용 플랜트, 오피스, 상업용 건물, 공공시장으로 구성됨.
 - 분야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주택분야가 3.2조 달러로 전체 시장의 3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세계 인프라시장 규모는 2.7조 달러로 전체 건설수요에서 32% 차지
 - 인프라 분야를 세분해 보면 도로, 항만, 공항 등이 포함된 교통 부분, 발전 등 에너지 분야, 공공의료 분야로 구성
 - 교통 분야 시장규모는 약 1.28조 달러로 전체 인프라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에너지 분야 1.26조 달러, 공중보건 부분 1,930억 달러로 구성됨.
- 산업용 플랜트를 포함한 非주택분야는 2.6조 달러로 세계 건설시장에서 30%를 차지
 - 非주택 분야 시장규모는 산업용 플랜트 1.1조 달러, 오피스 0.4조 달러, 상업용 건물 0.58조 달러, 공공시장 0.48조 달러로 이루어짐.
 - 산업용 플랜트 시장은 석유화학 분야가 1,500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1,200억 달러, 유틸리티 1,100억 달러, 교통 장비 분야 1,000억 달러, 정유 740억 달러 순

<2014년 세계 건설시장 현황 및 분야별 시장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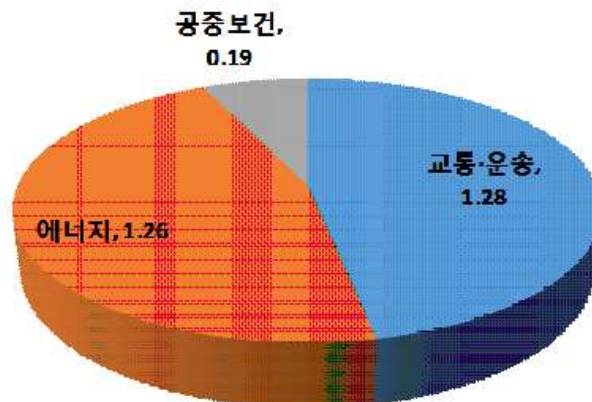
201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 8.5조 달러



자료 : IHS

<2014년 세계 인프라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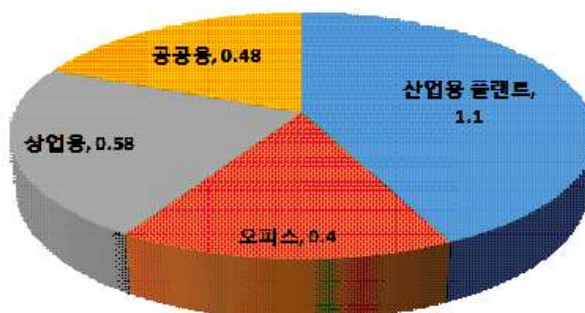
(단위 : 조 달러)



자료 : IHS

<2014년 세계 非주거용 건설시장 현황>

(단위 : 조 달러)



자료 : IHS

2. 세계 건설시장 전망

□ 2015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 성장한 8.8조 달러에 달할 전망

- 2015년 세계 건설·플랜트시장은 미국 경제성장과 중국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 등 선진 건설시장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

□ 2015년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은 개도국시장이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지역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

-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어 아시아 건설시장은 2015년에도 양호할 전망
-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산유국 건설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높으나, 사우디아라비아, UAE, 나이지리아 등 주요 산유국 건설시장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UAE 등 중동 및 아프리카 산유국 인프라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사우디아라비아 및 나이지리아의 건설투자 증가율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전망

□ 유로존 건설시장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 전망

- 경기부양을 위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 그리스 사태 및 러시아 문제 해결이 가시화될 경우 성장세는 예상치를 상회할 여지도 존재

□ 개도국 시장 중 중남미 지역 건설시장은 성장세가 저조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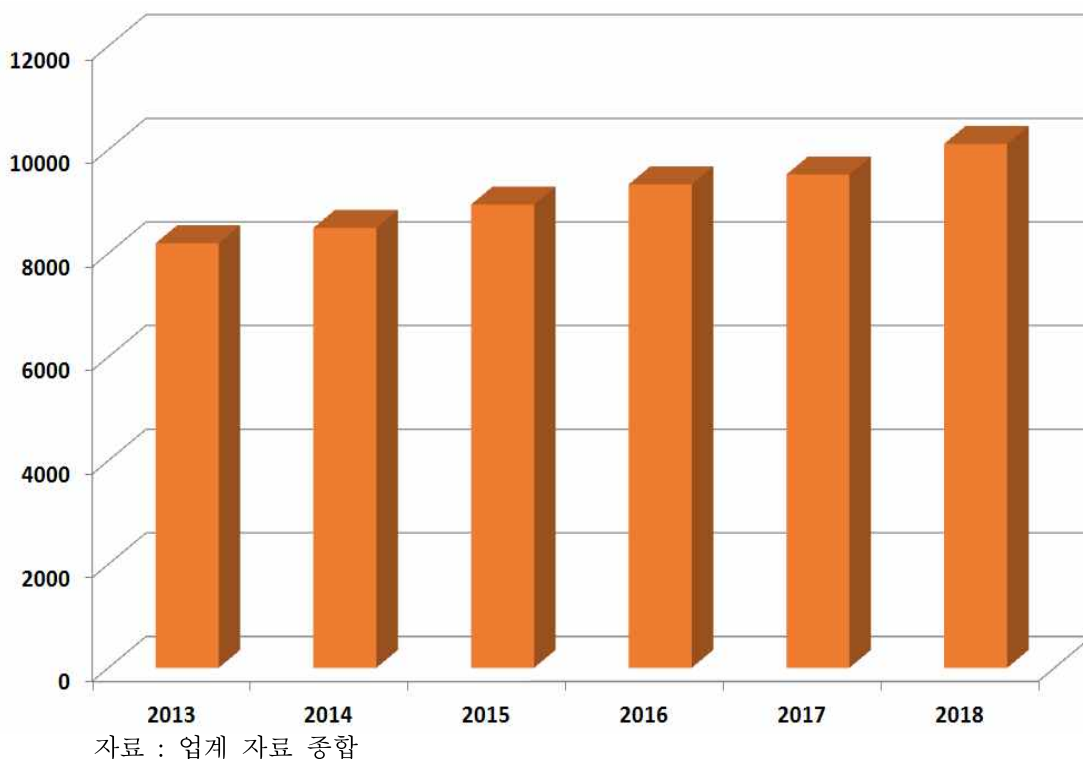
- 중남미 시장을 대표하는 브라질의 경우 월드컵 및 올림픽 특수에도 불구하고 2015년 건설시장 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미국 경기혼풍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건설시장 역시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이 예상됨.

□ 2018년까지 세계 건설시장은 연 평균 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세계 건설시장은 10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

- 2016년 세계 건설시장은 9.2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10조 달러 벽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부양책은 세계 건설·인프라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 부진과 세계 최대 건설 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는 세계 건설·플랜트시장 성장의 가장 큰 위험요소
-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의 성장세는 세계 건설·인프라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

<2014년 세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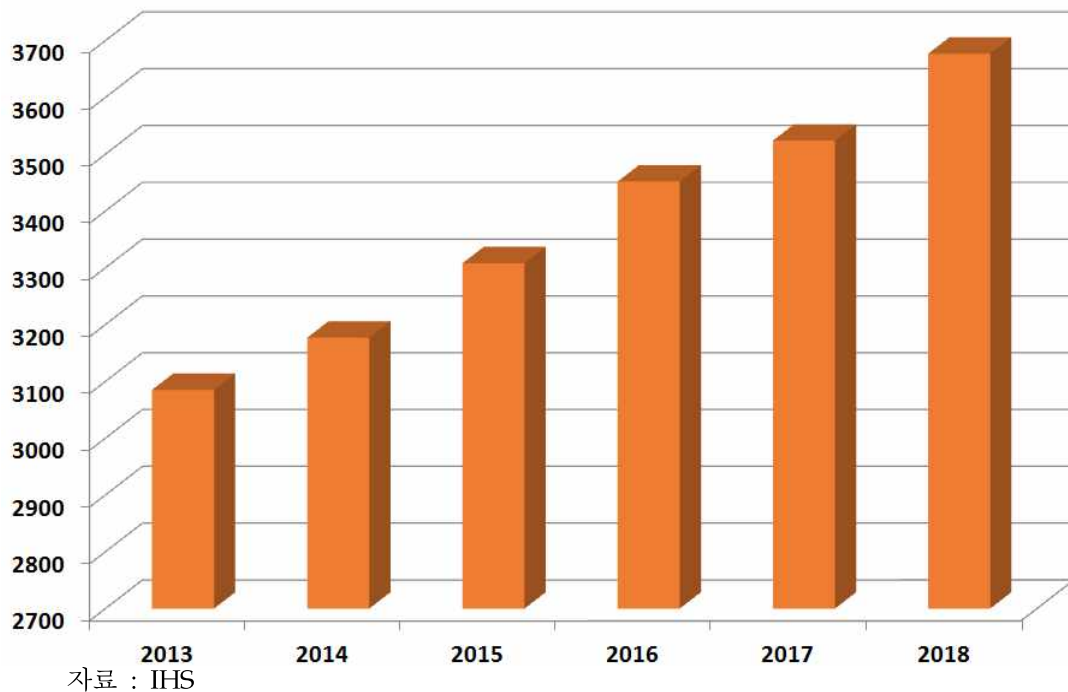


3. 분야별 시장 전망

- 2015년 세계 주택시장은 전년대비 4% 증가한 3.3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 연평균 3.5% 성장할 전망
 - 2016년 이후 세계 경제는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계 주택시장은 2015년 대비 4% 이상 성장할 전망
 - 세계 주요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세계 최대 주택시장인 중국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 10% 이상 성장했으나, 2015년 이후 5%대로 낮아질 전망
 -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7%는 중국 경제하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중요
 - 중국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통화확대 정책 등의 지원 여부에 따라 성장률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선진국 주택시장 중에서는 미국 및 영국 주택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
 - 미국의 경우 2015년 하반기 금리인상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경제호조로 인한 주택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음.
 - 유럽에서는 영국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연평균 5% 성장이 가능할 전망
 - 개도국 주택시장에서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시장이 6% 이상 성장할 전망
 - 유가 하락에서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인도의 경우 경기 호조세로 주택시장도 호황을 맞고 있으며, 신규 건설도 크게 늘어날 전망

<세계 주택시장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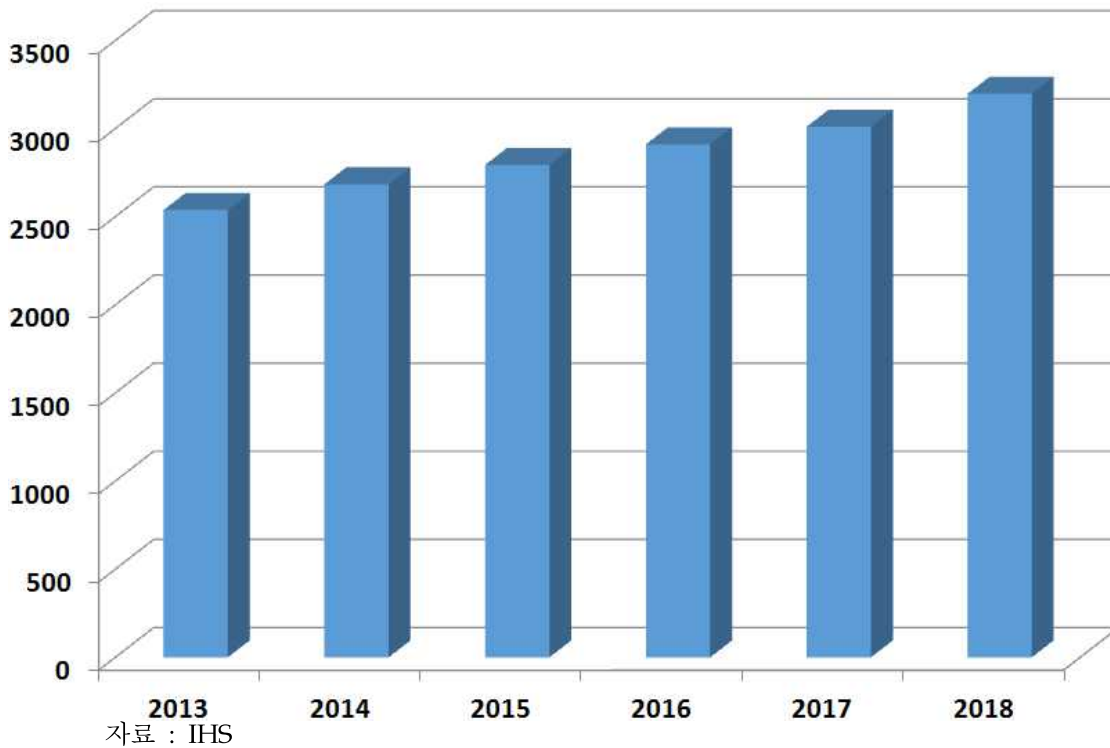


□ 2015년 세계 인프라시장 규모는 2.8조 달러 규모이며 전체 건설시장에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시장규모는 3.7조 달러로 연평균 4.5%씩 성장할 전망

- 세계 건설시장 여러 분야 중 인프라시장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인프라시장은 아시아 지역이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기준 아시아 인프라시장 규모는 9,000억 달러에 달함.
 - 전 세계 인프라시장 중 아시아가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률 측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 중국 인프라 시장은 연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2018년까지 연 1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
- 중동지역 인프라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 8% 이상 성장할 전망
 - UAE는 월드컵 개최를 위해 관련 인프라시설을 늘릴 예정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

<세계 인프라시장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 2015년 세계 오피스시장 규모는 4,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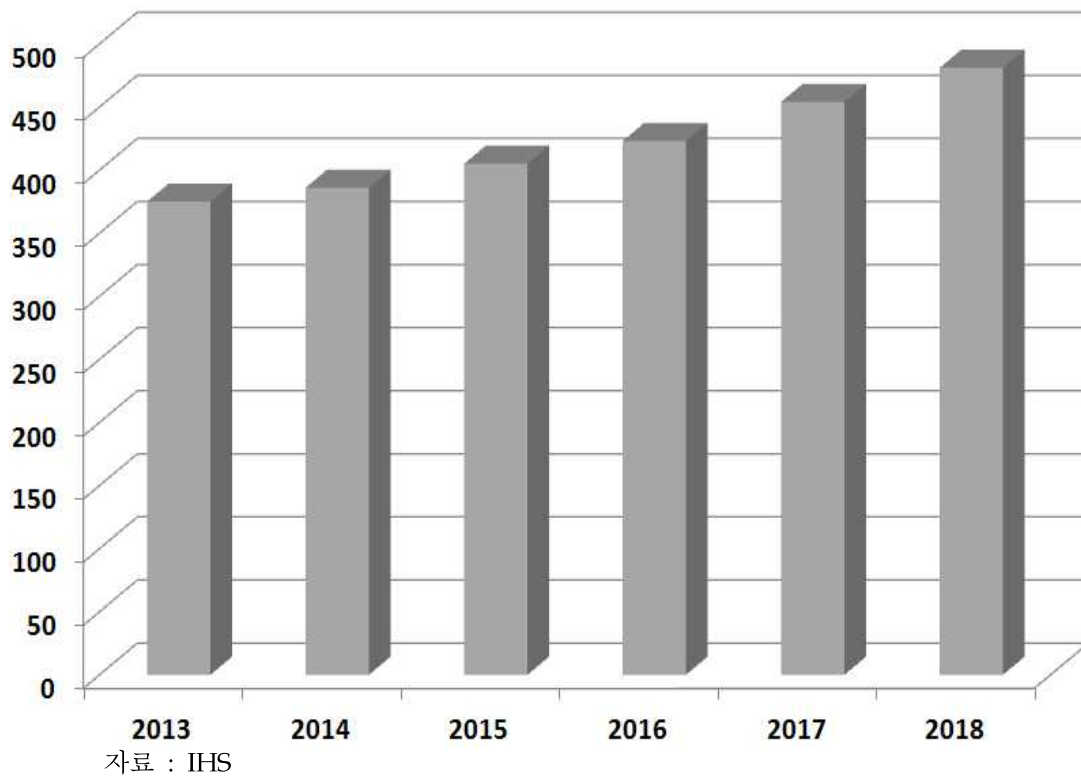
- 세계 오피스시장은 전체 건설시장에서 약 5%를 차지하고 있음.
- 세계 최대 오피스시장은 중국이며, 규모는 2015년 기준 600억 달러
 -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오피스 수요 증가로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까지 연 15%씩 성장할 전망
- 그 뒤를 미국 오피스시장이 4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오피스시장은 경기호황에 따른 오피스 수요 증가로 연 평균 10% 이상 성장 중

□ 2015년 세계 상업용시장 규모는 6,000억 달러이며, 2018년까지 연 4% 씩 성장할 전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상업용시장이 2013년 이후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2015년은 전년대비 5%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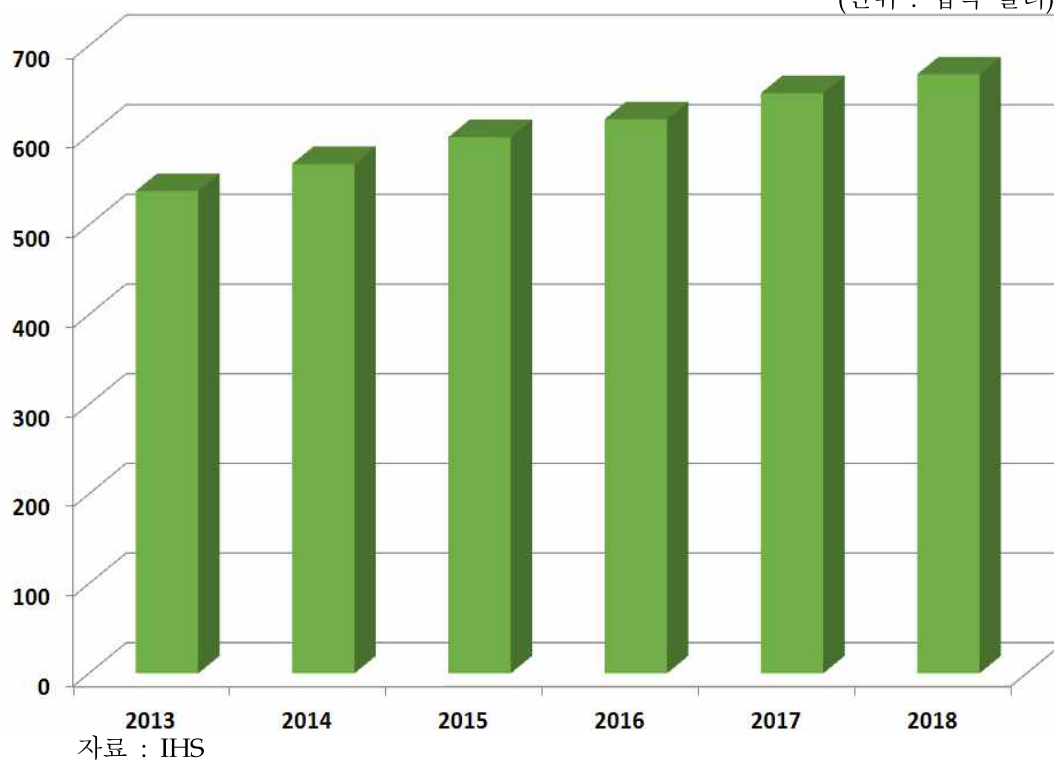
<세계 오피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세계 상업용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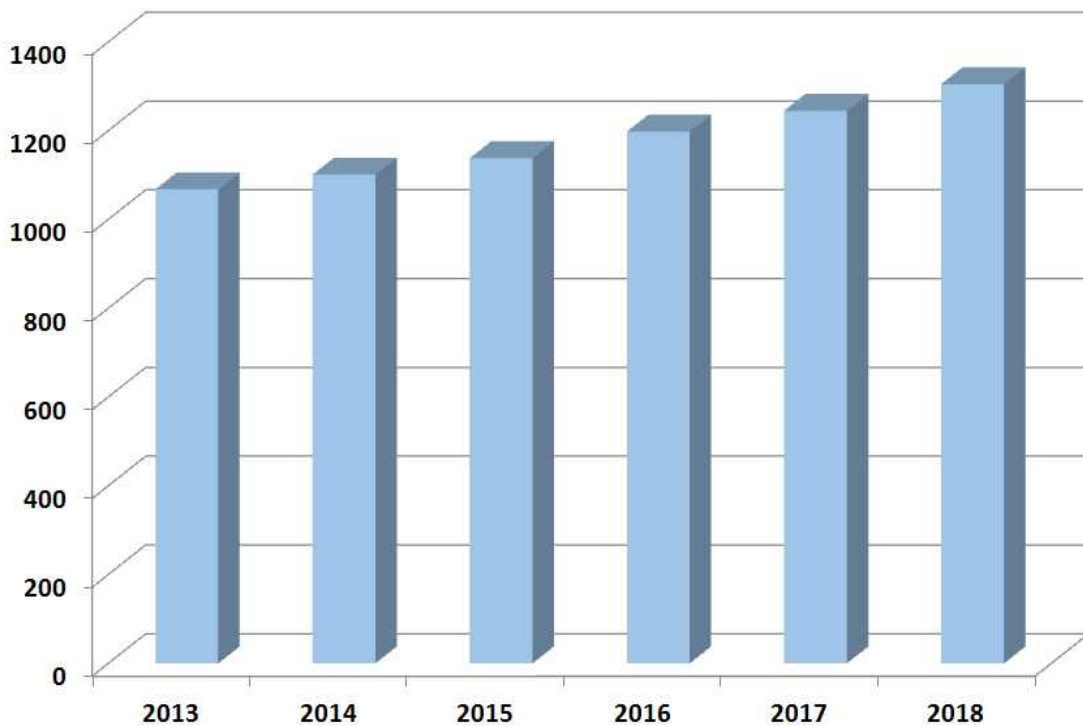


□ 2015년 세계 플랜트시장 규모는 1.1조 달러 규모로 세계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 세계 플랜트시장은 2008년 이후 성장세가 2%에 불과했으나, 2014년 이후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까지 연평균 4% 성장세가 가능할 전망
- 세계 주요 플랜트시장을 살펴보면 중국 4,600억 달러, 미국 1,000억 달러, 인도 570억 달러 순
- 우리 주요 플랜트 수출지역인 중동지역의 경우 UAE가 90억 달러로 중동 최대 플랜트시장이며, 사우디아라비아 70억 달러, 쿠웨이트 10억 달러 순
- 수요 증가 측면에서는 동남아시아 플랜트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2015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플랜트 수요 증가율이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말레이시아 및 태국도 4% 이상 성장할 전망

<세계 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IHS

4. 지역별 건설·플랜트시장 동향

가. 아시아

□ 2014년 기준 아시아 지역 건설시장 규모는 약 3.9조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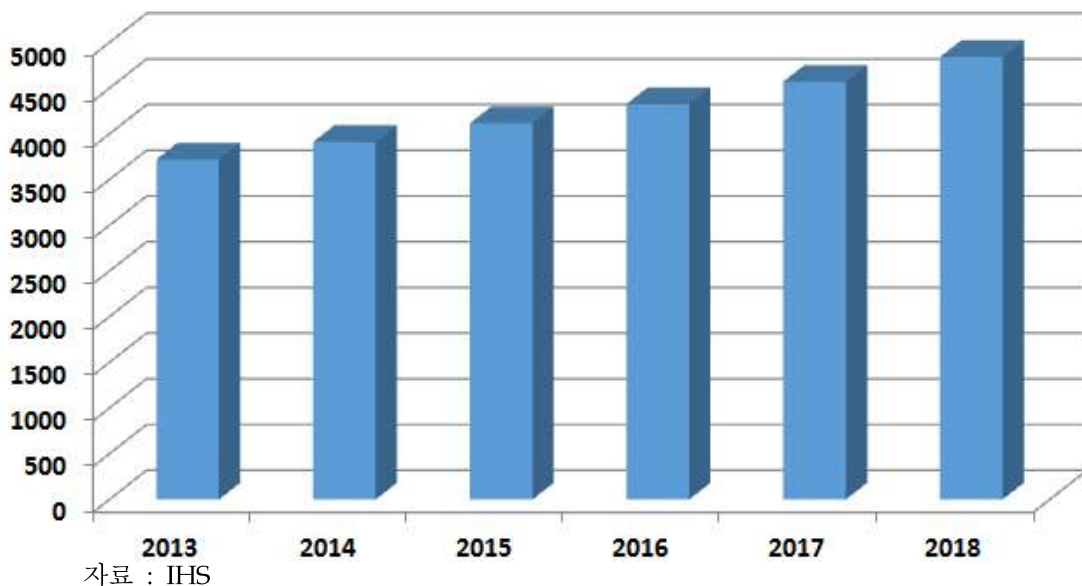
- 아시아 지역은 세계 건설수요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건설시장
- 성장성 측면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타 지역 대비 가장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중국 경제 성장률은 7%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인도 경제 성장률은 8.5% 기록할 전망
 -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은 6%를 넘어서고 있어 3% 대에 불과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있음.

□ 2015년 아시아 지역 건설시장 규모는 4.1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4.8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 건설수요는 연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인프라 수요가 건설 수요를 주도할 전망

<아시아 지역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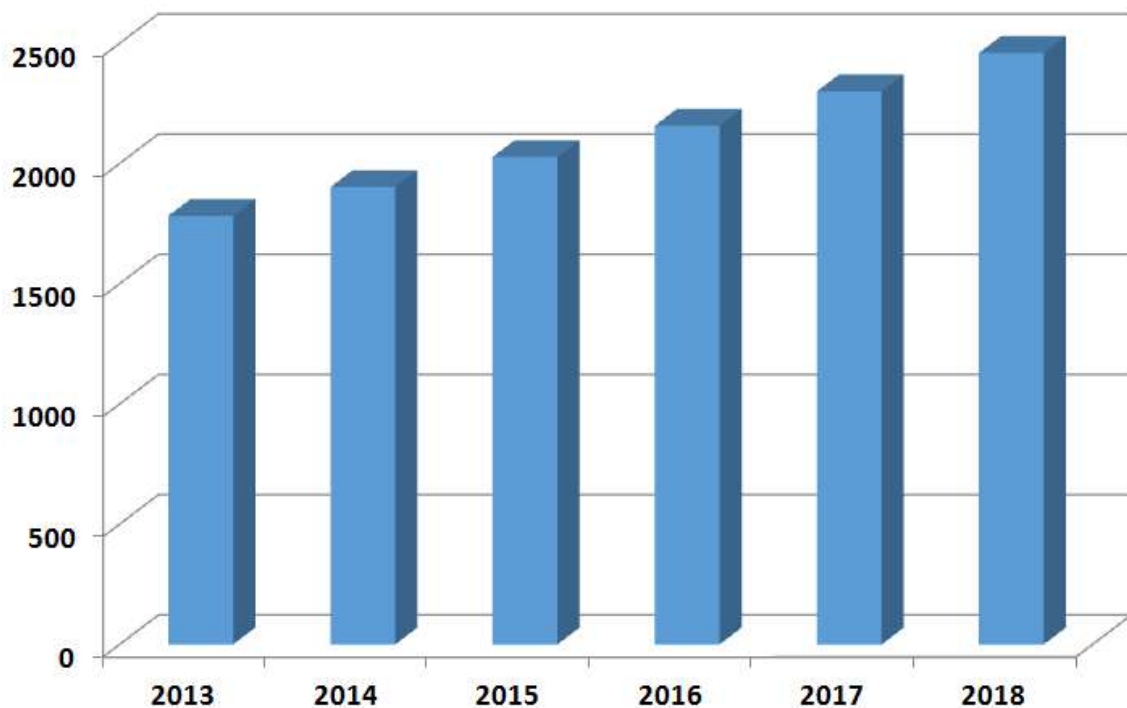


□ 중국 건설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9조 달러로 세계 최대 시장

- 중국은 세계 건설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건설시장으로 2018년까지 연 7%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택과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두 분야가 중국 건설수요의 68%를 차지
- 중국 주택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6,90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8년 8,500억 달러 시장에 달할 전망
- 2014년 기준 중국 인프라시장 규모는 5,700억 달러로 파악되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9% 증가한 6,2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8,0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2014년 중국 플랜트시장 규모는 4,400억 달러로 중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전망

<중국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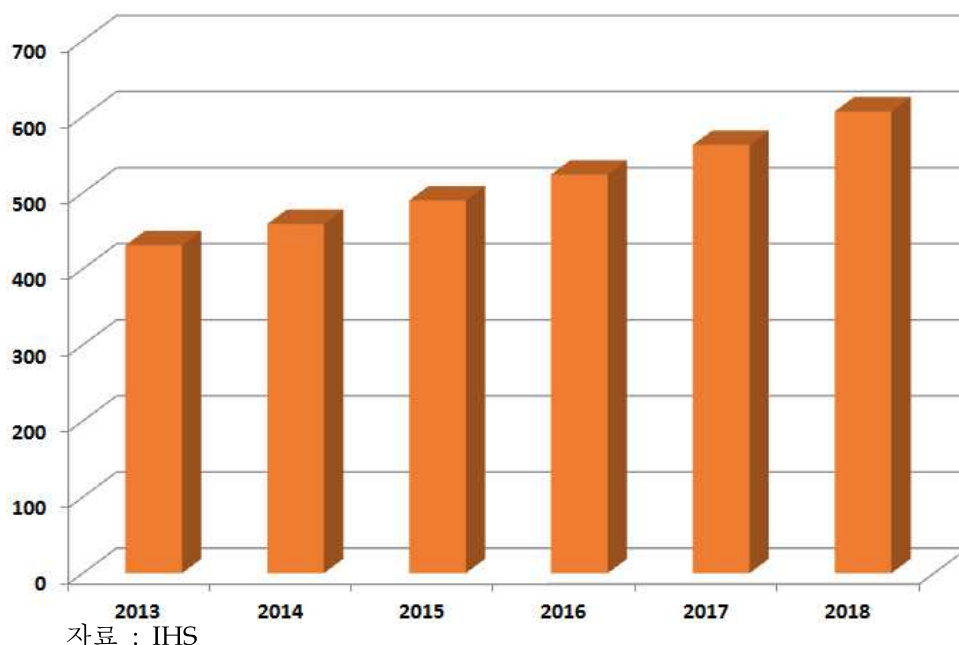
자료 : IHS

□ 2014년 인도 건설시장 규모는 4,600억 달러이며, 중국, 일본 다음의 아시아 지역 3위 시장

- 2015년 인도 경제성장률은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인도의 경우 원유 소비의 80%를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가하락은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상황을 조성함.
- 2015년 인도 건설시장은 전년대비 7% 증가한 4,9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 연 8%씩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
- 인도 건설수요의 57%는 주택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인도 주택 시장규모는 2,600억 달러
- 인도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 800억 달러였던 시장규모가 2018년 1,200억 달러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
 -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 교통,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2018년까지 연 11% 증가할 전망
- 인도 플랜트시장은 2014년 550억 달러였으며, 2018년 7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

<인도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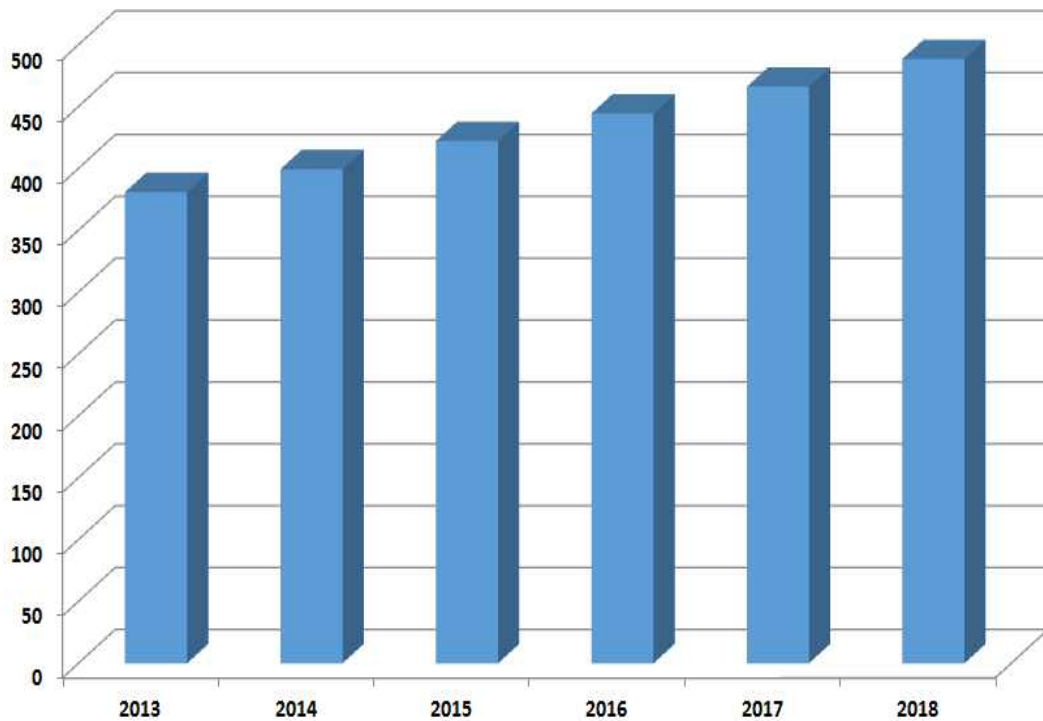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동남아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4,000억 달러이며, 2015년 전년 대비 5% 증가한 4,2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동남아시아 건설시장은 연 5% 성장하여 2018년 4,9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2014년 기준 국가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2,78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대시장
- 말레이시아 410억 달러, 태국 350억 달러, 필리핀 290억 달러, 베트남 170억 달러 순

<동남아시아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 2014년 기준 동남아시아 주택 건설시장 규모는 790억 달러이며, 2015년 82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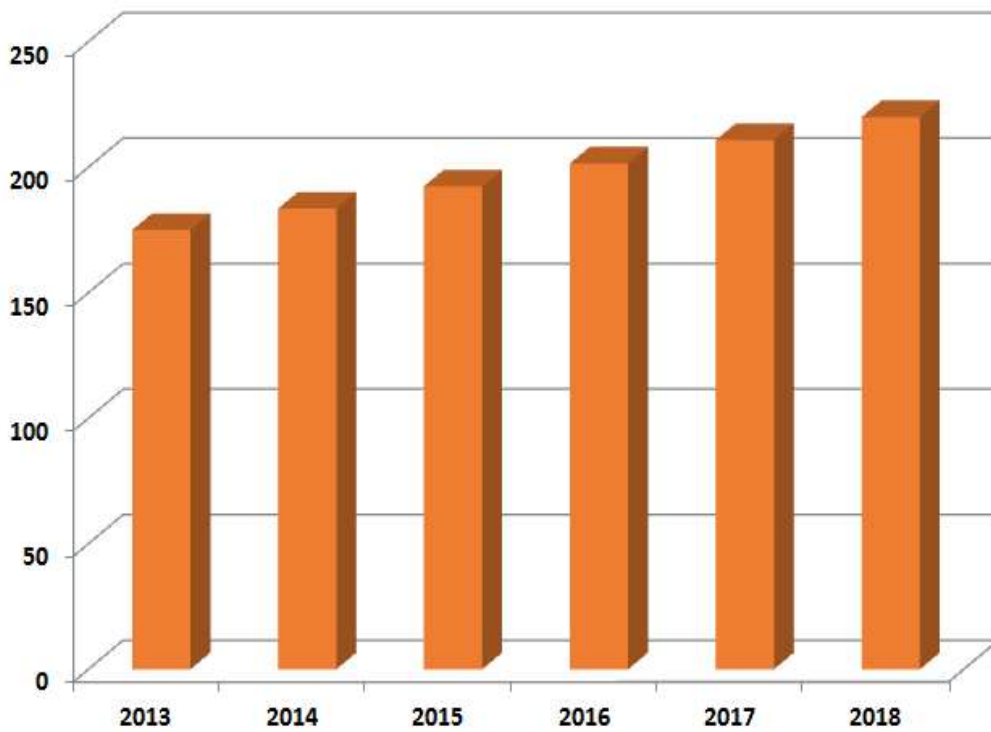
- 2014년 국가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350억 달러, 필리핀 170억 달러, 태국 및 말레이시아 105억 달러, 베트남 66억 달러
- 2018년 9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률은 3% 미만에 그칠 전망

□ 2014년 동남아시아 인프라시장 규모는 1,83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전체 건설 수요의 45%를 차지

- 2014년 기준 국가별 인프라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1,340억 달러, 말레이시아 170억 달러, 태국 160억 달러, 필리핀 100억 달러, 베트남 52억 달러 순
-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5년 전년대비 5% 증가한 1,43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1,6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인도네시아는 물류비용이 GDP에 27% 달할 정도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기발전계획에 따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신규 도로 2,650km, 민자도로 1,000km, 신규 공항 15개, 신규 철도 3,258km 건설, 24개 항만에 대한 확장 사업 등 사회기반 시설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추진될 예정
- 태국 인프라시장은 2015년 170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19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도로, 철도 복선화, 항만 및 공항 투자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ASEAN 허브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예정
 - 인프라 투자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불안한 정치상황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선 정치안정이 급선무
- 말레이시아 인프라 시장은 태국시장 규모와 비슷한 규모이며, 2015년 170억 달러에서 2018년 188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전망
 - 말레이시아 인프라 상황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상황이며, 도시철도 등 교통분야 투자가 향후 확대될 예정
- 동남아시아 인프라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베트남으로 2015년 55억 달러에서 2018년 6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한 생산기지로써 주목받고 있어 산업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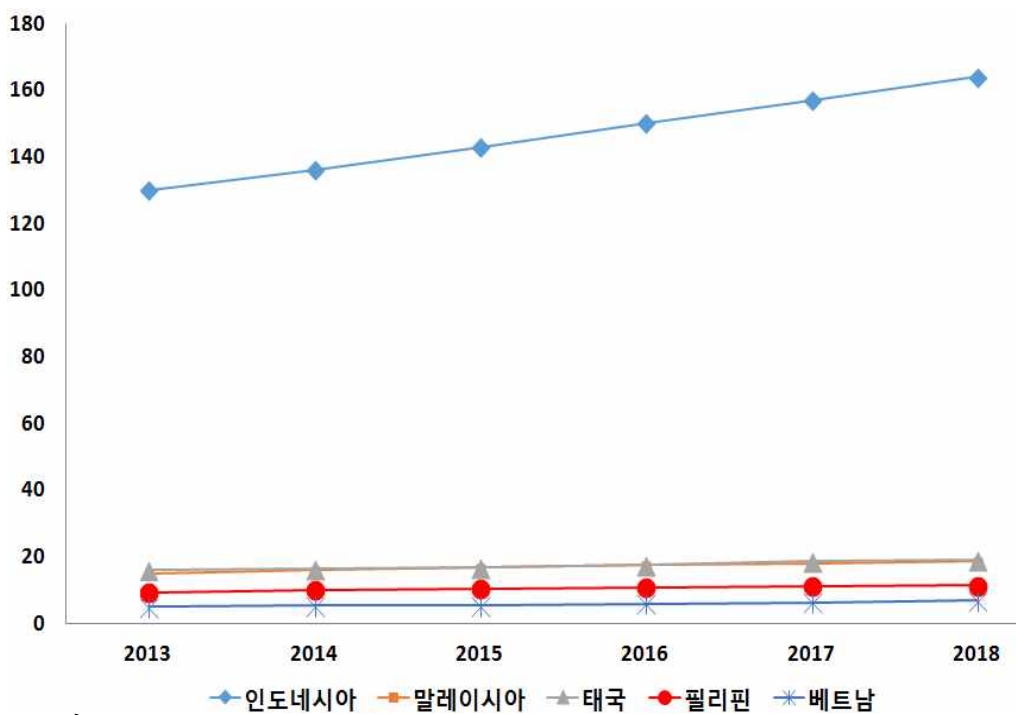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동남아시아 국가별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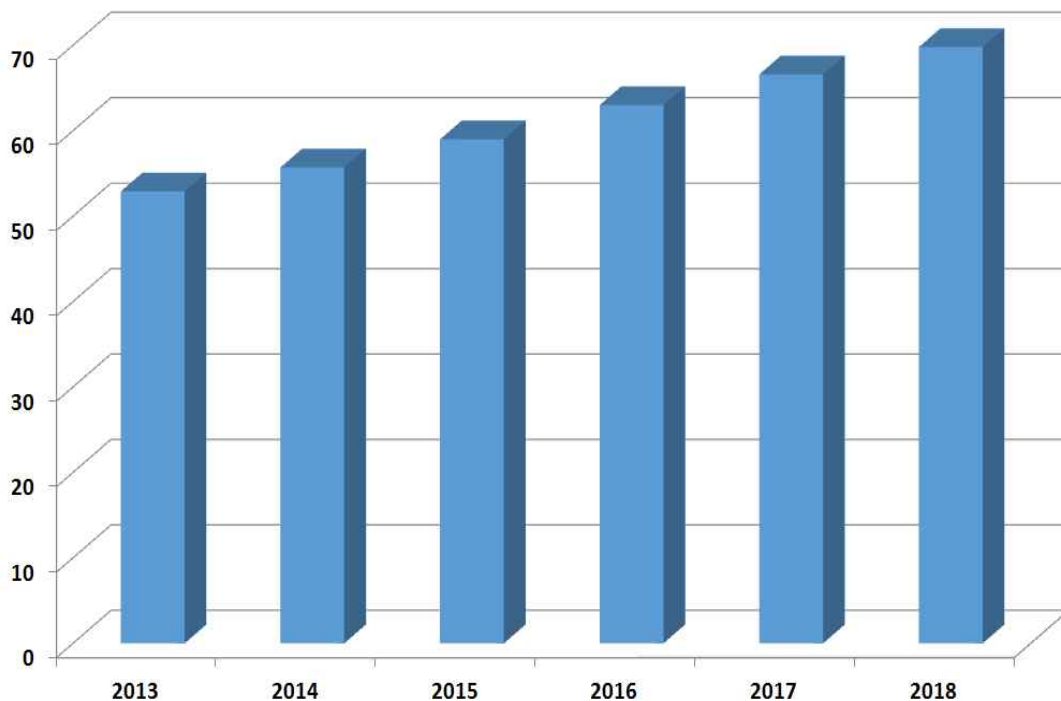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 2014년 동남아시아 비주택용 건설시장은 1,390억 달러 규모이며, 이 중 플랜트 분야가 40%를 차지

- 2015년 동남아시아 비주택용 건설시장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1,48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건설분야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동남아시아 플랜트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560억 달러이며, 2015년 590억 달러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
-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플랜트시장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말레이시아가 83억 달러, 태국 38억 달러 순

<동남아시아 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나. 중동

□ 2014년 기준 중동지역 건설·플랜트시장 규모는 2,770억 달러

- 세계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나 건설시장의 개방성으로 인해 중요도가 높은 시장

□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2015년 중동지역 건설·플랜트시장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원유 판매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경우 저유가 상황은 재정 확보에 치명적
- 유가 하락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동 석유 수출국의 재정수지 흑자폭은 감소하고 균형재정 유가²⁾는 상승하고 있음.
 - 석유 수출국의 석유 비중은 GDP의 33~64%, 정부 재정수입의 56~92%로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낮은 UAE와 카타르는 비석유 부문의 높은 성장에 의한 정부 세입 및 투자 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흑자 폭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중동 지역 건설·플랜트시장은 전년대비 7% 감소한 2,57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2015년 이후 유가 안정에 따른 중동지역 건설 수요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3,1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중동 건설·플랜트시장의 58%를 차지

-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플랜트시장 규모는 840억 달러이며, UAE 시장규모는 770억 달러
- 그 뒤를 이란 590억 달러, 카타르 290억 달러, 오만 100억 달러, 쿠웨이트 76억 달러, 바레인 59억 달러, 요르단 48억 달러 순

2) 균형재정유가 : 원유 생산량을 현재 수준을 가정하고 정부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유가 수준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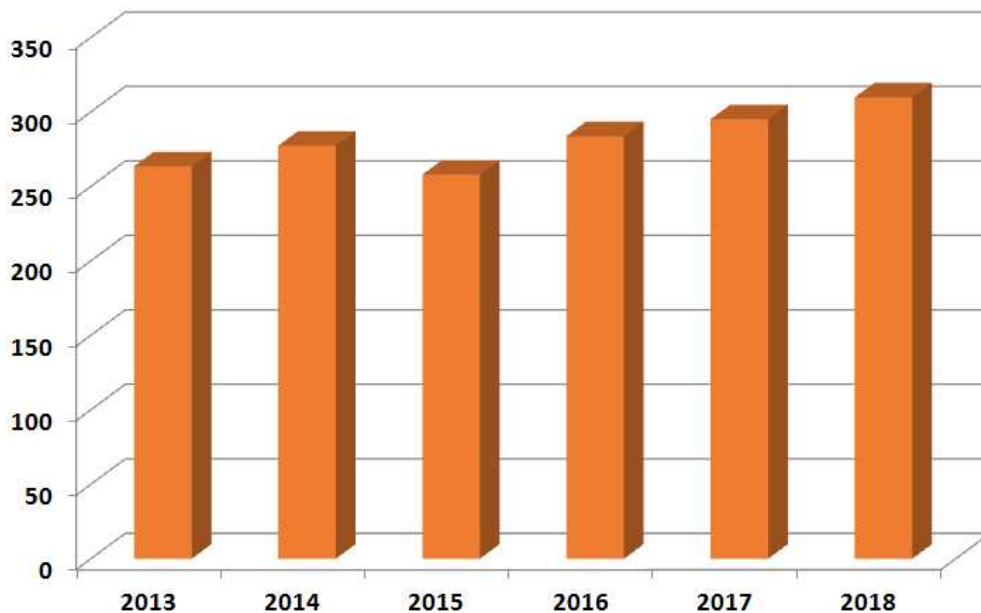
<중동 주요 석유 수출국의 2011년과 2014년 재정균형유가와 재정수지 비교>

국가	2011년		2014년	
	재정균형유가 (달러)	재정수지 (GDP 대비 %)	재정균형유가 (달러)	재정수지 (GDP 대비 %)
사우디아라비아	79.0	11.6	97.0	2.5
UAE	102.5	4.1	79.0	5.7
쿠웨이트	59.0	29.8	60.4	25.1
카타르	71.0	7.6	49.0	10.8
바레인	118.5	-0.3	130.1	-5.0
오만	84.5	-0.4	110.6	-2.2
이라크	79.6	14.2	96.8	3.9
알제리	112.1	-0.4	127.5	-1.5

자료 : EIU

<중동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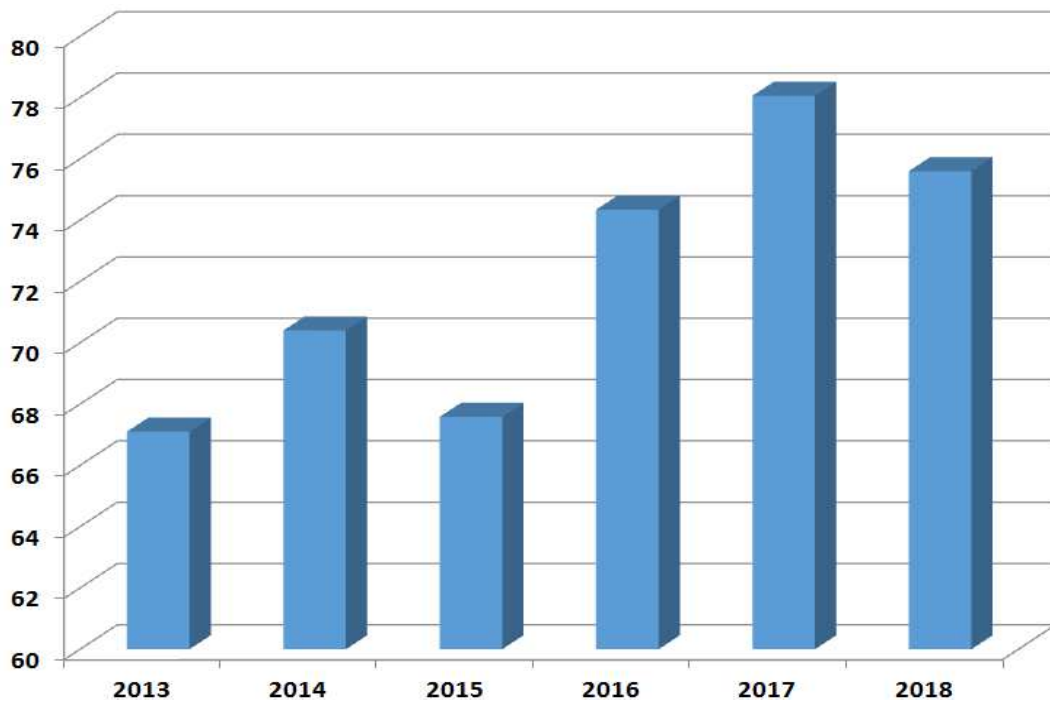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 2014년 기준 중동 주택 건설시장 규모는 700억 달러이며, 2015년 전년대비 4% 감소한 675억 달러 전망

- 2014년 국가별 주택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250억 달러, 카타르 및 UAE 120억 달러, 오만 36억 달러, 쿠웨이트 27억 달러, 요르단 18억 달러 순
- 2015년 중동 주택시장도 유가 하락과 더불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 이후 유가 안정과 더불어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18년 중동 주택 건설시장 규모는 760억 달러를 형성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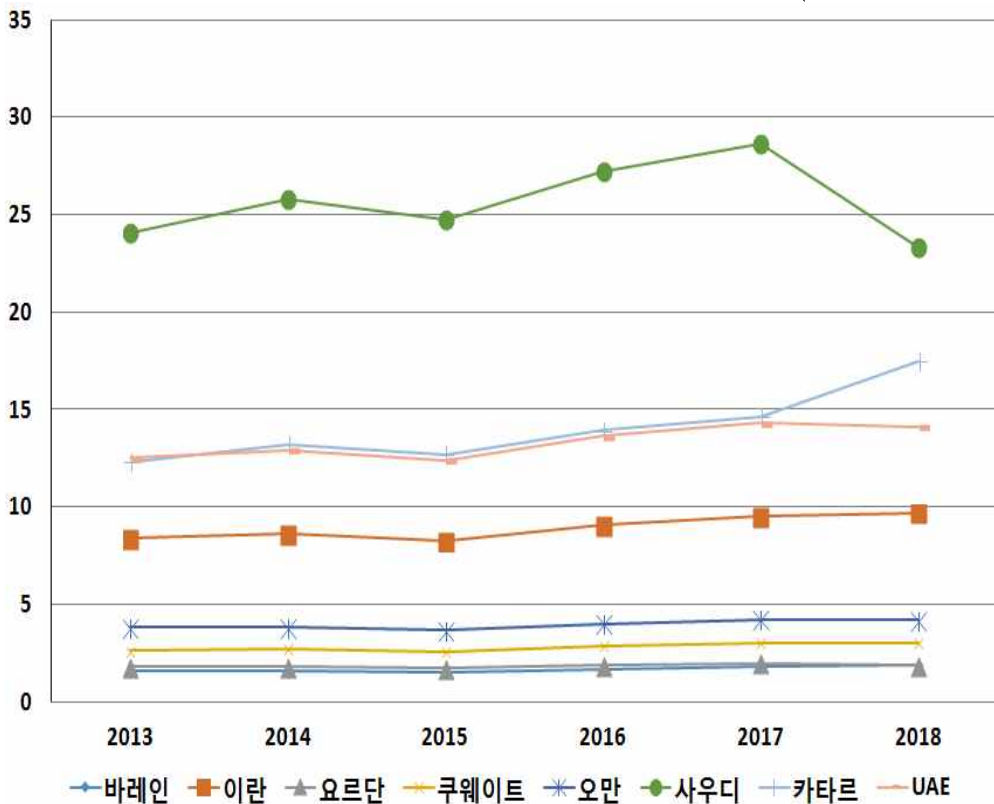
<중동 주택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중동 국가별 주택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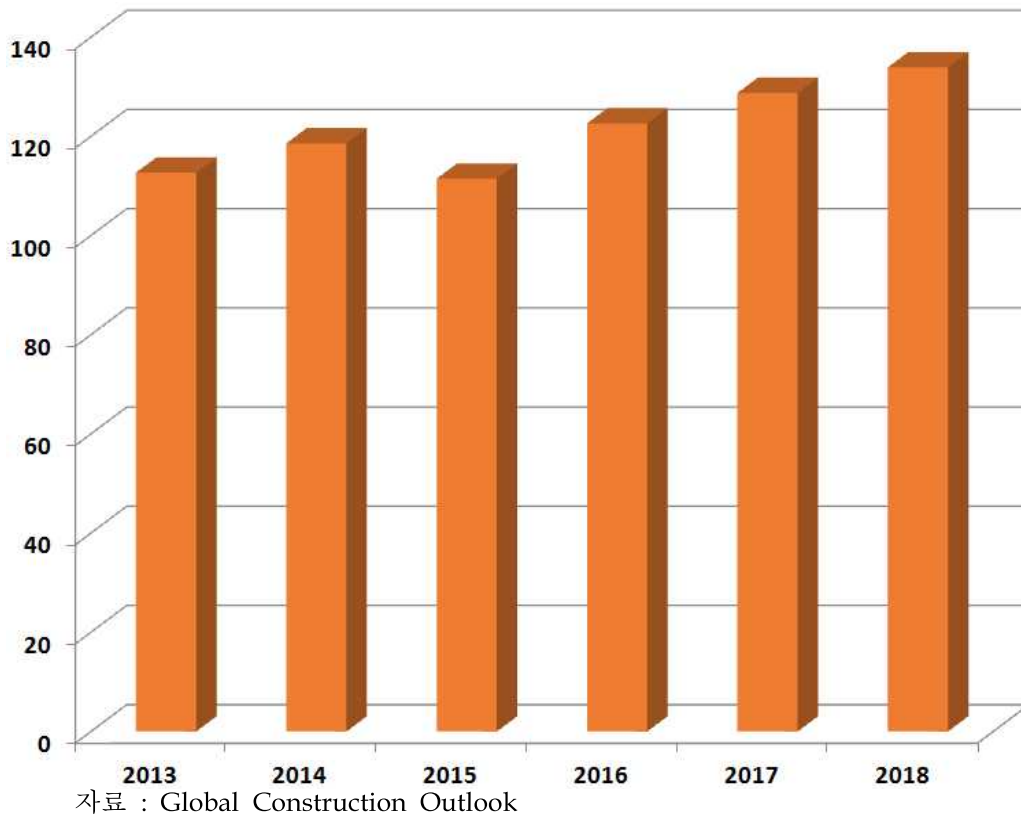
자료 : IHS

□ 2014년 중동지역 인프라시장 규모는 1,100억 달러이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저유가 상황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만성적인 물부족으로 인한 담수관련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도로·의료·통신 관련 투자도 확대될 전망
- 2016년 이후 인프라 투자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중동지역 인프라시장 규모는 1,34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2014년 기준 중동 주요 국가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 390억 달러, 이란 320억 달러, UAE 235억 달러, 카타르 130억 달러 순
- 2018년 중동지역 인프라 시장 연 6%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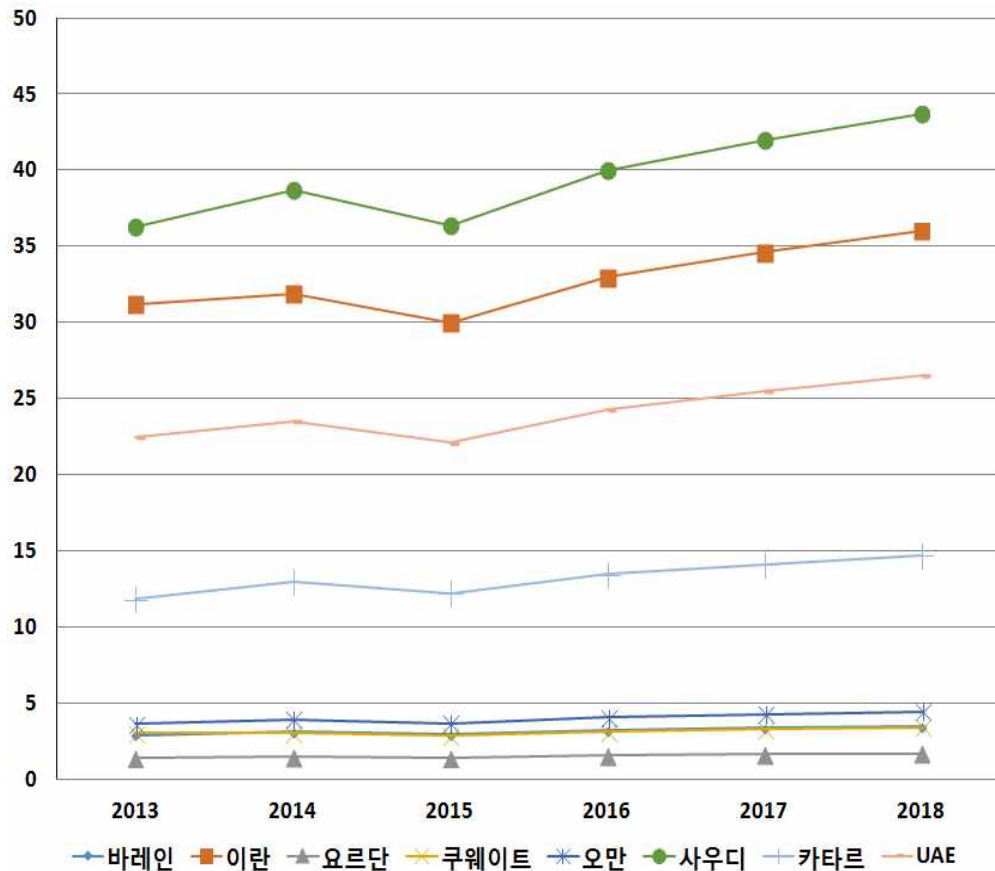
<중동 인프라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중동 국가별 인프라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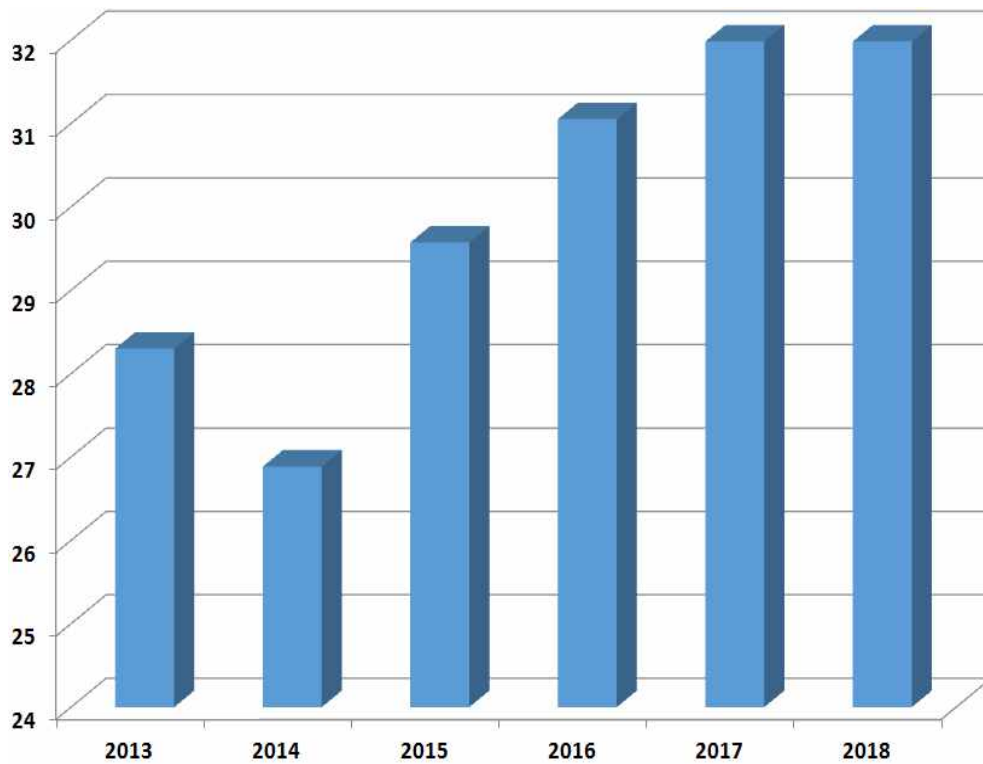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 2014년 중동지역 플랜트시장 규모는 283억 달러이며, 2015년 전년대비 5% 감소한 268억 달러가 될 전망
 - 2015년 중동발 플랜트 발주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2016년 이후 중동 플랜트시장은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
 - 2018년 중동 플랜트시장 규모는 32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 6%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원유 정제 및 석유화학 플랜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에너지 수요 및 물 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 및 담수 플랜트 수요가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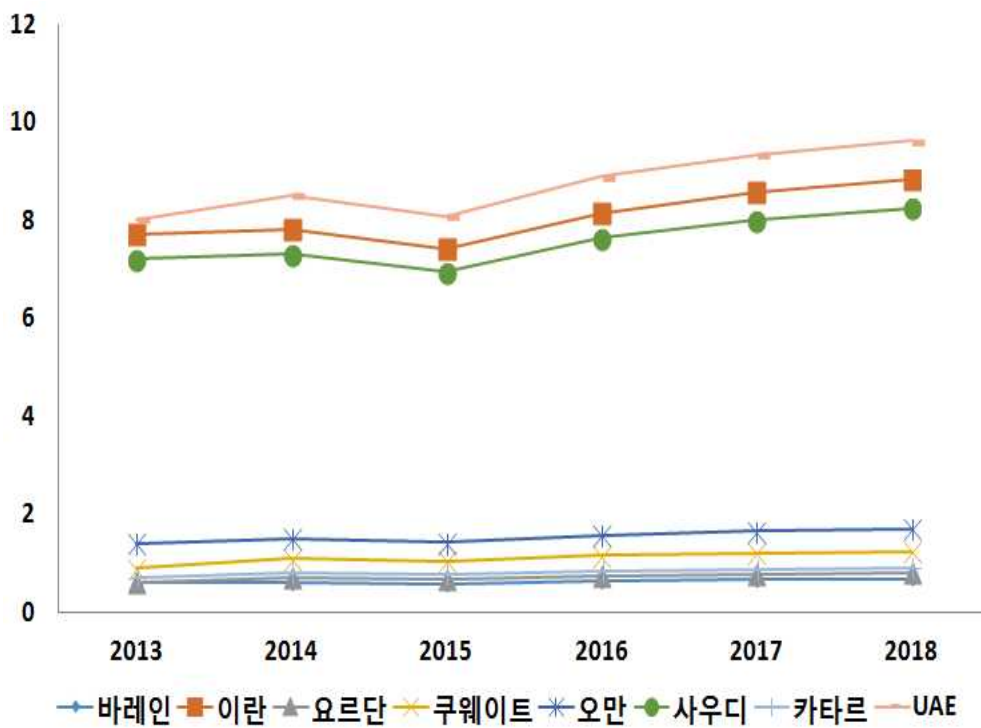
<중동 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중동 국가별 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다. 중남미

- 2014년 기준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규모는 5,860억 달러 규모이며, 브라질과 멕시코가 중남미시장의 약 60%를 차지
 - 2015년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은 중남미 경제의 어려움의 인해 2% 증가한 6,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2014년 중남미 경제성장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 경제성장률도 2% 내외의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1.3%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6.1%, 4.2%, 2.6%, 2.7%로 꾸준히 둔화돼 왔으나, 2014년 이후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상품 수출이 많은 중남미 지역의 경우 글로벌 경기 회복 부진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과 금융 불확실성이 성장률 저하의 주요 원인
 - 2016년 이후 중남미 건설경기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6,50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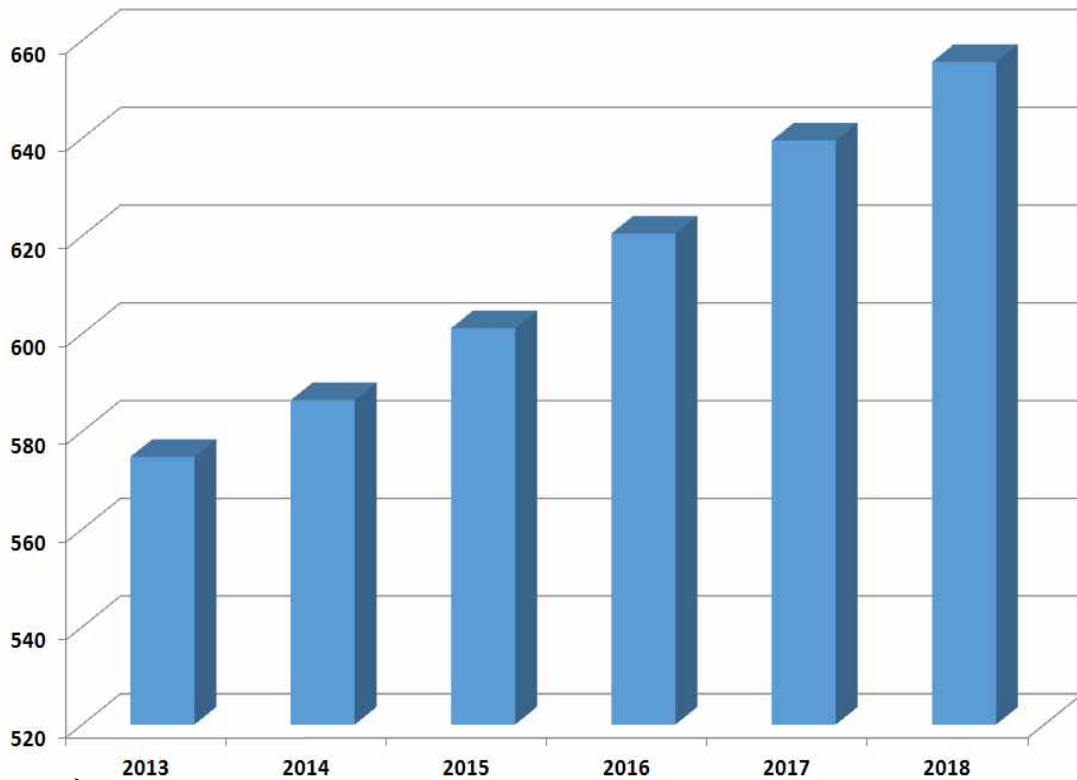
<중남미 주요 국가 경제규모 및 경제성장률>

순위	국가	국내 총생산	2015년 경제성장률
1	브라질	2조2천억 달러	0.2%
2	멕시코	1조 3억 달러	2.1%
3	아르헨티나	5,361억 달러	-0.2%
4	콜롬비아	4,001억 달러	4.3%
5	칠레	2,640억 달러	1.8%
6	베네수엘라	2,092억 달러	-3%

자료 : IMF, 주 : GDP는 2014년 10월 기준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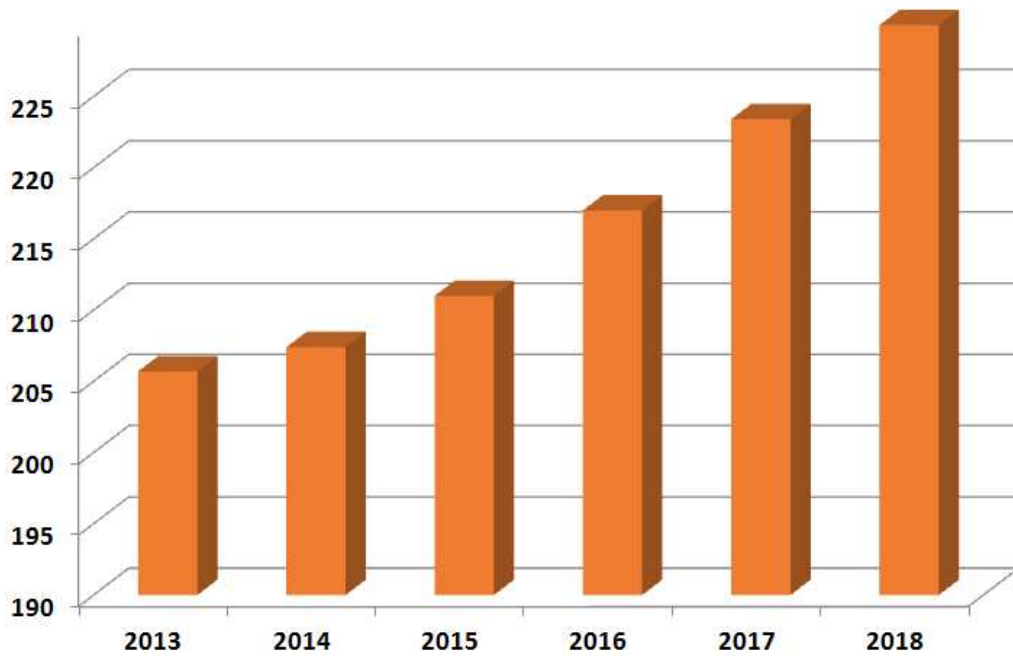


□ 2015년 중남미 주택 건설시장은 전년대비 2% 증가한 2,100억 달러 규모

- 경기침체와 더불어 주택 건설시장도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며, 2016년에도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
- 중남미 최대 주택 건설시장은 멕시코이며, 2014년 기준 시장규모는 580억 달러
- 그 뒤를 브라질 470억 달러, 콜롬비아 260억 달러, 페루 230억 달러 순
- 2017년 이후 경제회복과 더불어 주택 건설시장 성장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시장규모는 2,3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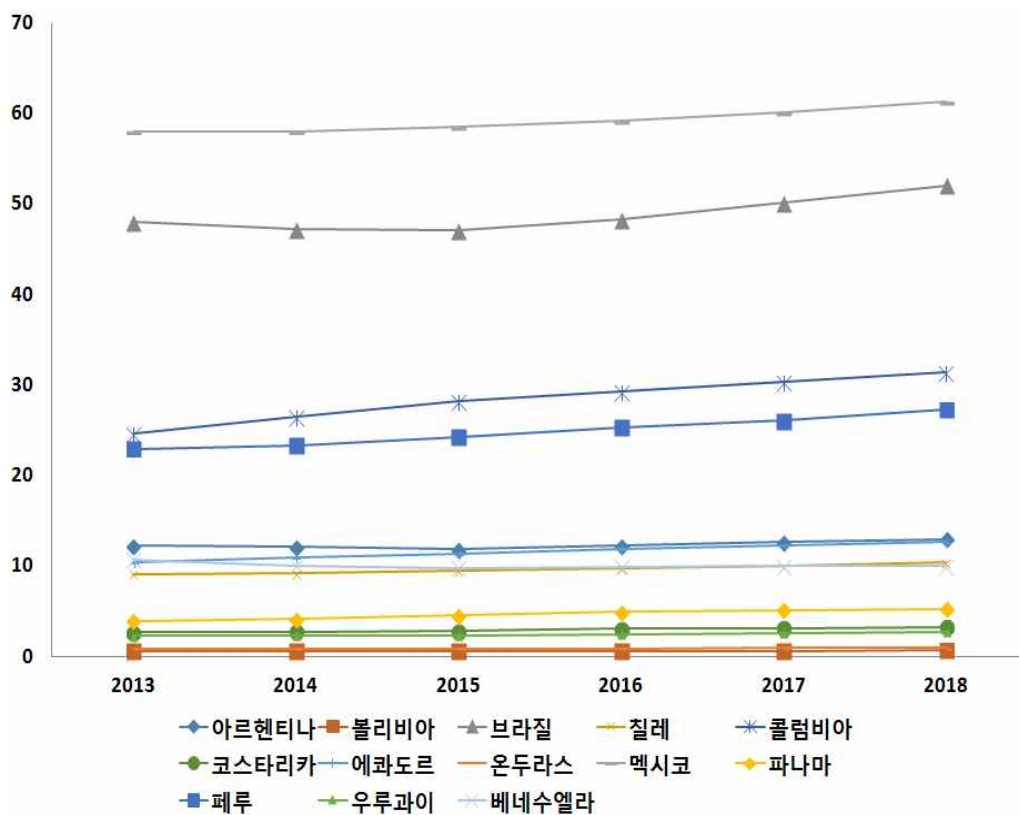
<중남미 주택건설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중남미 국가별 주택건설 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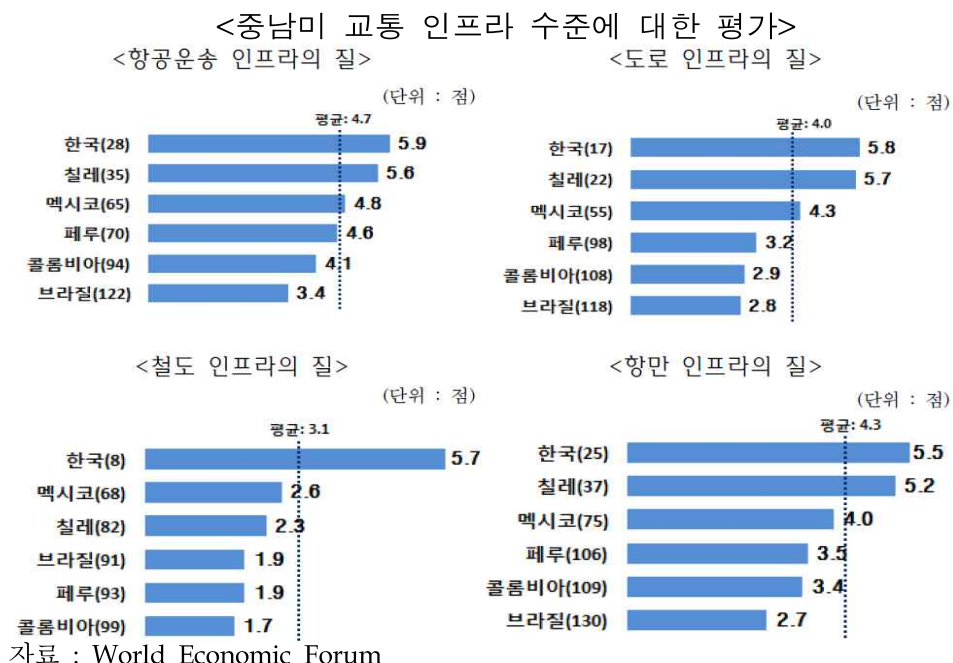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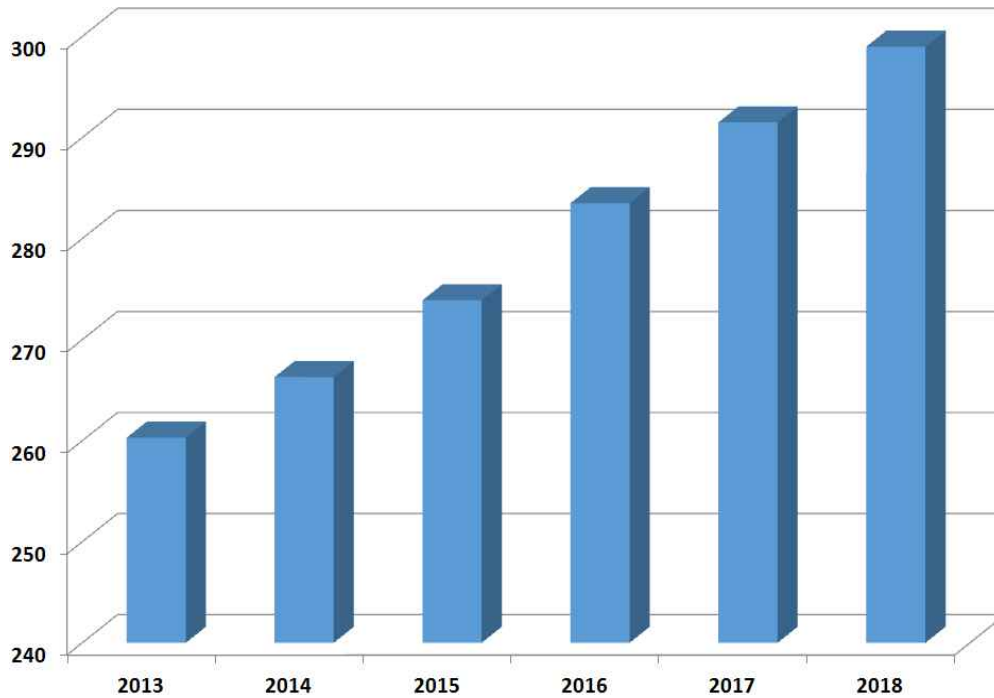
□ 2015년 중남미 인프라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 증가한 2,740억 달러

- 중남미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낙후된 인프라 때문에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
- 특히 중남미교통 인프라 수준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음.
 - OECD국가의 GDP 대비 물류비용은 10%이나 중남미 국가는 16~25%에 이를 정도로 교통 인프라가 낙후
 -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의 경우 항공운송, 도로, 철도, 항만 등 제반 교통 인프라의 질에서 전 세계 142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중남미 최대 인프라시장은 브라질로 2014년 기준 1,100억 달러 규모이며, 그 뒤를 멕시코가 560억 달러 순
-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2014년 인프라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220억 달러, 칠레 224억 달러, 콜롬비아 164억 달러, 페루 68억 달러, 베네수엘라 194억 달러, 볼리비아 11억 달러
-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약 3,000억 달러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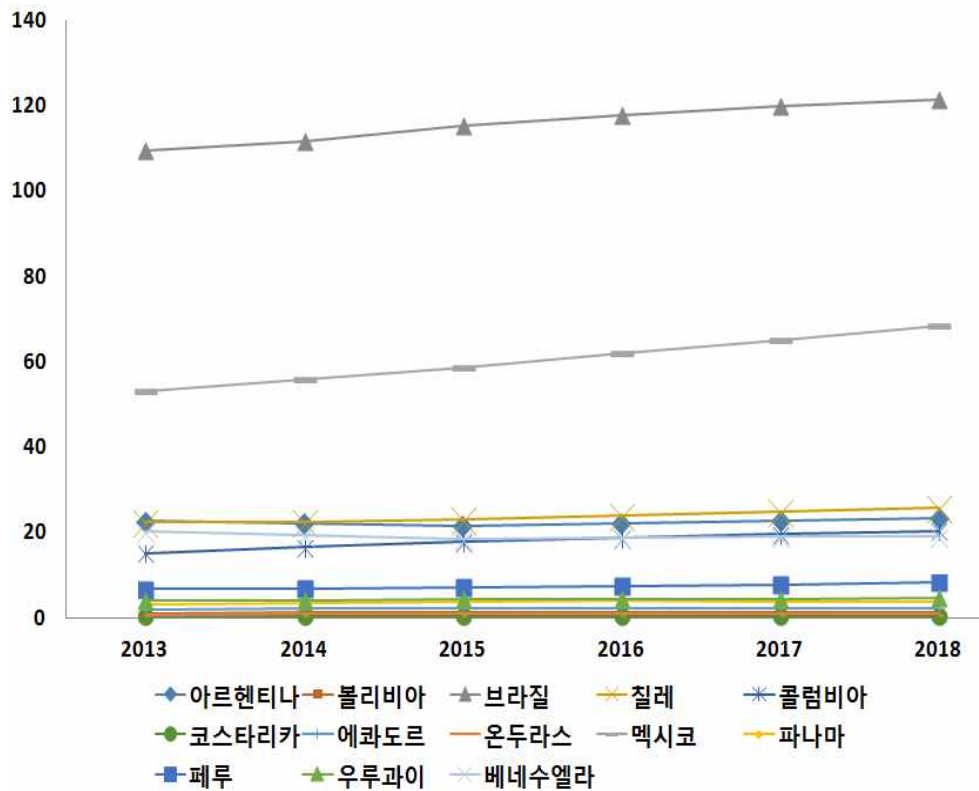
<중남미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중남미 국가별 인프라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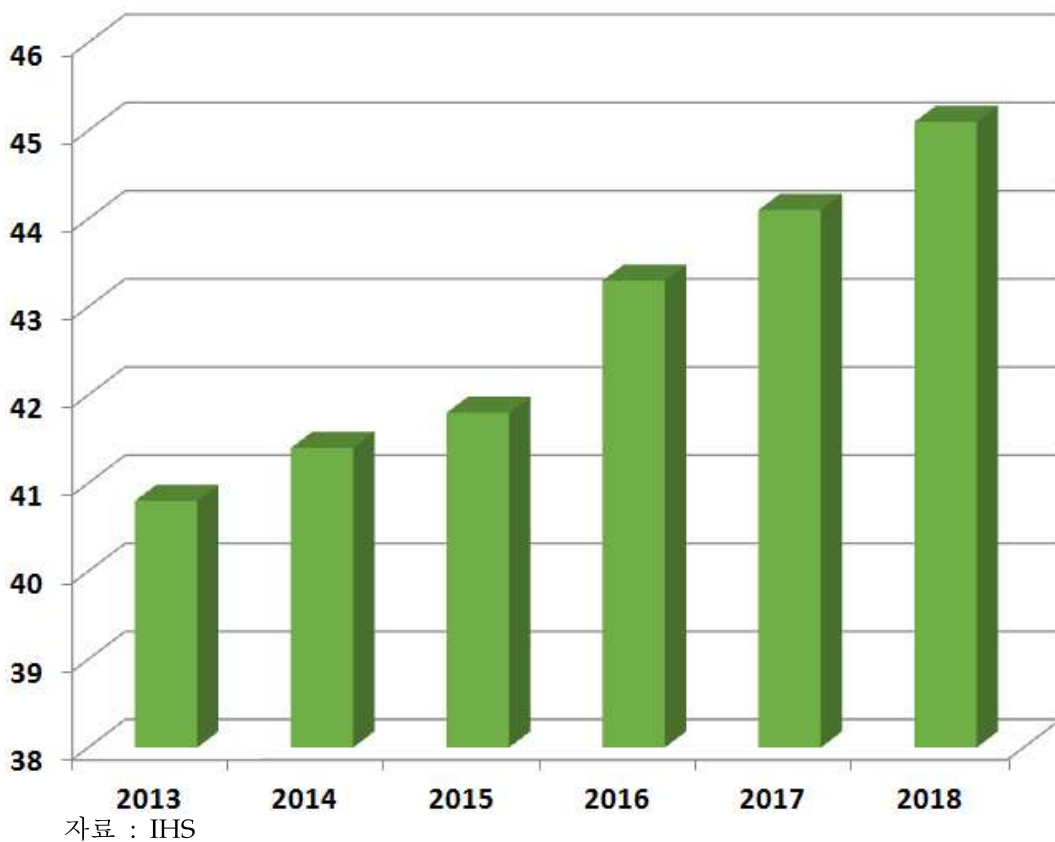
자료 : IHS

□ 2015년 중남미 플랜트시장 규모는 420억 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14년 기준 브라질 160억 달러, 멕시코 130억 달러로 중남미 플랜트 시장의 약 70%를 차지
- 2014년 기준 베네수엘라 23억 달러, 아르헨티나 27억 달러, 칠레 14억 달러, 에콰도르 11억 달러 등 브라질과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플랜트시장 규모는 30억 달러 미만
- 중남미 플랜트시장은 2018년까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플랜트시장 규모는 450억 달러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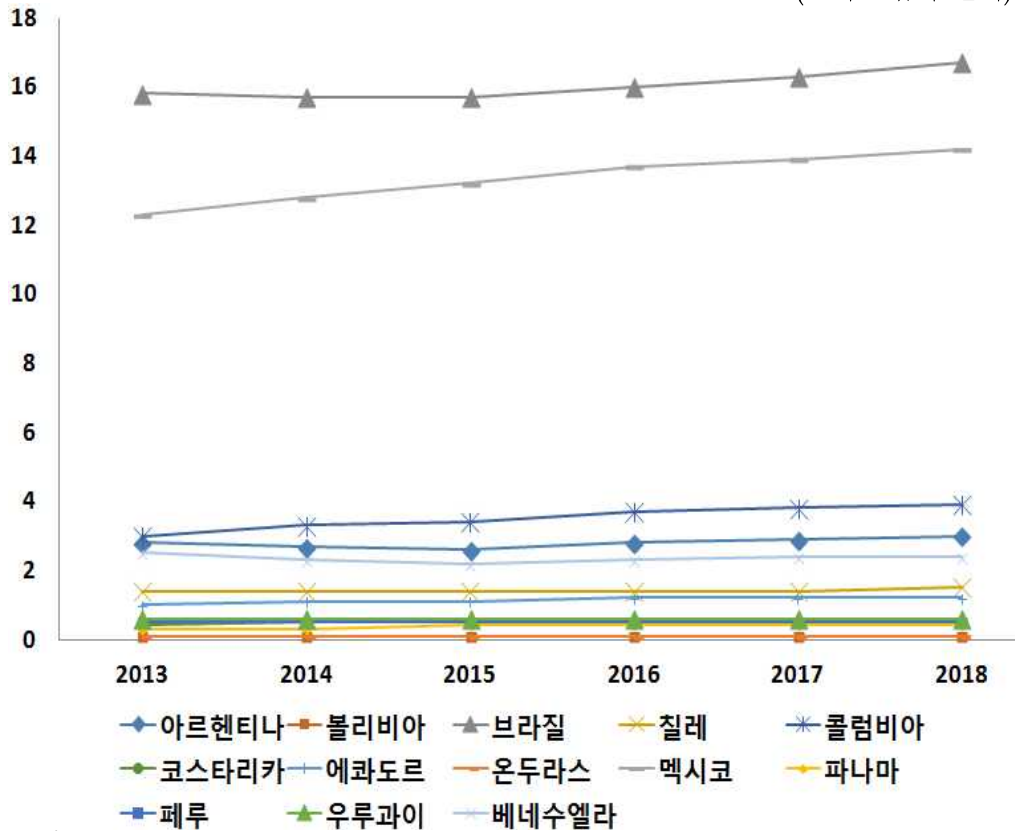
<중남미 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중남미 국가별 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IHS

라. 북미

□ 2014년 기준 북미 건설시장 규모는 1.15조 달러로 전년대비 4.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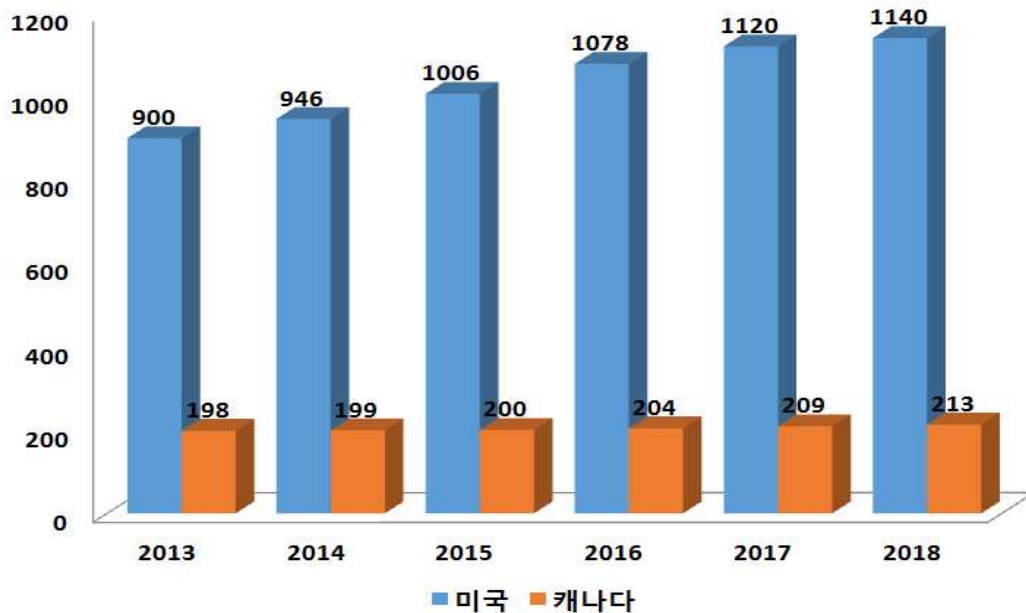
- 북미 건설시장은 미국과 캐나다 시장으로 나뉘며 2014년 미국 건설시장 규모는 9,460억 달러이며, 캐나다는 1,990억 달러
- 미국 건설시장은 양호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선진국 건설시장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
 - 미국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미국 건설시장이 2013년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지출과 신규 착공이 늘어나고 있음.
 - 미국 건설업계는 2014년 29만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2015년에도 25만~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
- 미국시장과는 달리 캐나다 건설시장은 2013년과 동일한 규모

□ 2015년 북미 건설시장은 전년대비 5% 가까이 증가한 1.2조 달러가 될 전망

- 미국 경기상승에 힘입어 미국 건설시장도 훈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6% 증가한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
- 캐나다 건설시장은 2015년에도 전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할 전망

<북미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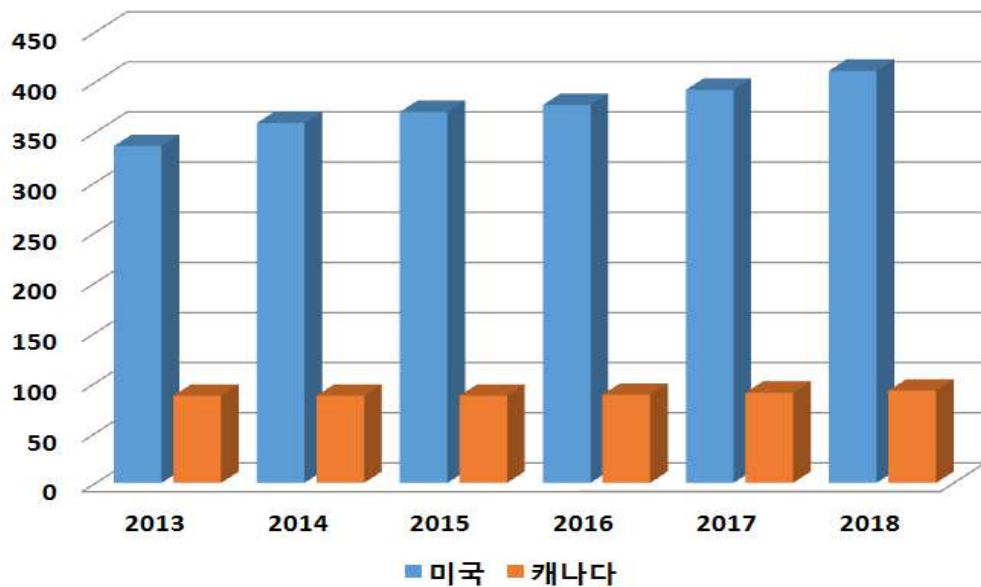
자료 : IHS

□ 2014년 북미 주택시장 규모는 4,460억 달러 규모이며, 미국 3,600억 달러, 캐나다 860억 규모

- 미국 경기 호조로 인해 2014년 미국 주택시장은 7%에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했다.
- 캐나다 주택시장은 성숙단계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015년 미국 주택시장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그 성장률은 약 3%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 미국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음.

<북미 주택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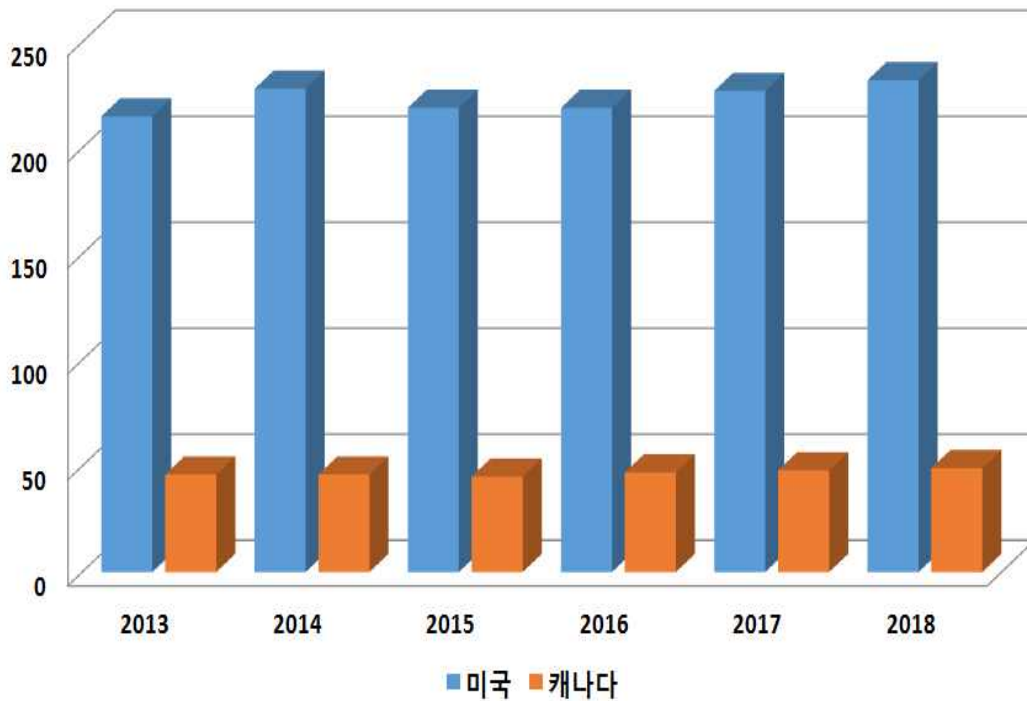


자료 : IHS

- 2014년 북미 인프라시장 규모는 2,740억 달러 규모이며, 2015년에는 소폭 하락한 2,60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전망
 - 북미 셰일가스 개발로 이에 따른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 투자가 2014년 5% 증가함.
 - 2015년은 유가 폭락에 따른 자원개발 부분의 투자가 감소할 전망 이어서 관련 인프라 투자도 감소할 전망
- 2014년 북미 플랜트시장 규모는 1,270억 달러 규모이며, 산업 생산 증가에 따른 증가세가 예상되나 그 규모는 소폭에 그칠 전망
 - 2014년 기준 미국 플랜트시장 규모는 1,010억 달러이며, 캐나다 시장은 279억 달러 규모
 - 북미 플랜트 시장은 정체를 보이다가 셰일가스 등 자원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셰일가스 기반의 석유화학 및 LNG 관련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며, 2018년 1,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캐나다 플랜트시장은 선진국 플랜트시장과 마찬가지로 성숙된 시장으로 연 수요 증가율은 2% 미만에 그칠 전망

<북미 주택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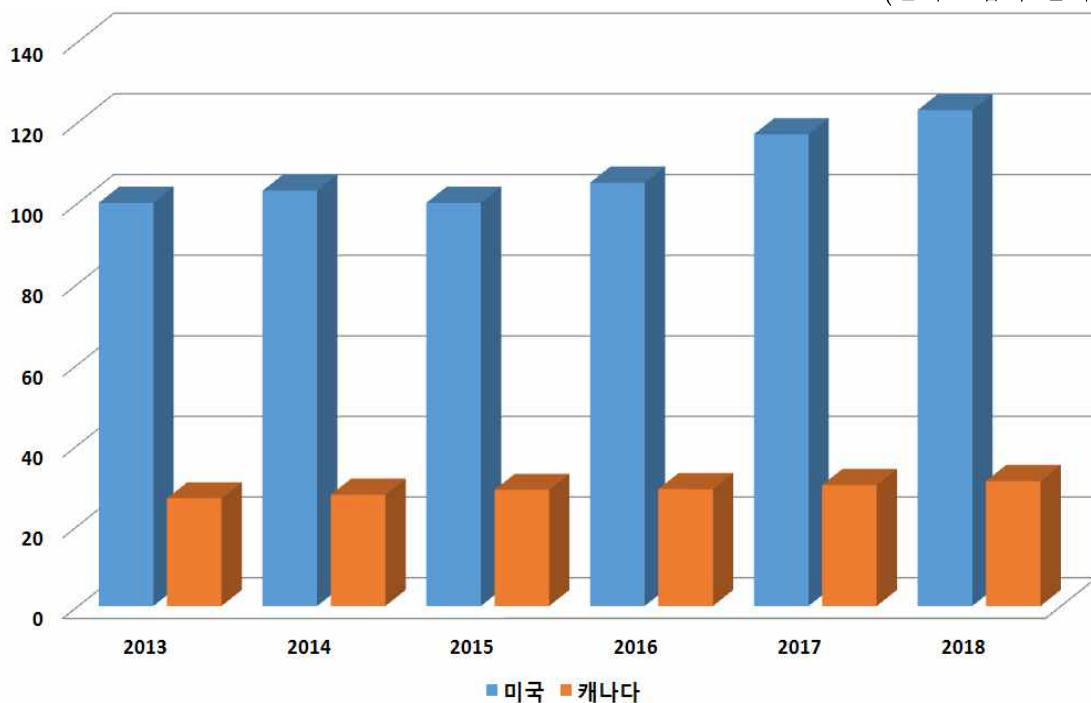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IHS

<북미 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I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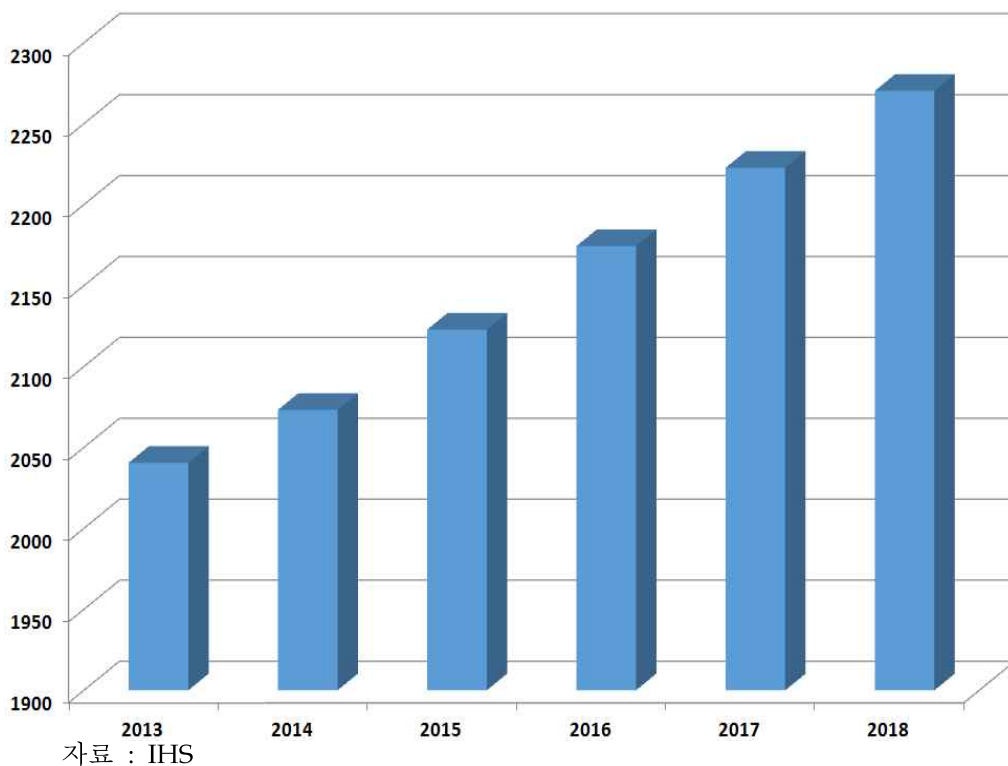
마. 유럽

□ 2014년 기준 유럽 건설·인프라시장 규모는 2조 달러이며, 2015년 2.1조 달러 시장을 형성할 전망

- 유럽 중앙은행의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 시행은 유럽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
- 이와 같은 정부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2013년 이후 유럽 건설·인프라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책지원이 효과를 거둘 경우 2018년까지 연 평균 2.3%씩 성장할 전망

<유럽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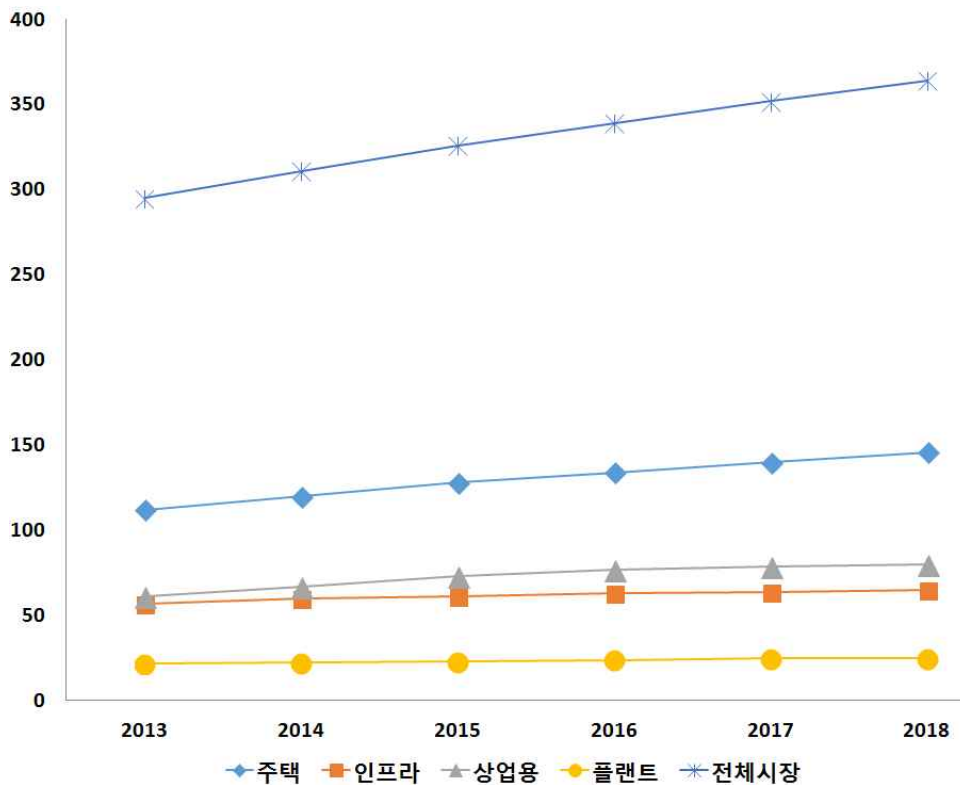
□ 유럽 건설시장 중 성장세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영국과 폴란드임.

- 2014년 영국 경제성장률은 2.6%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5년 경제성장률은 2.9%에 달할 전망
 -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의 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민간 부분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고용과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음.

- 2014년 영국 건설시장 규모는 3,10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15년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5% 증가한 3,25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2014년 영국 건설시장은 주택분야 1,200억 달러, 인프라 600억 달러, 상업용 건물 670억 달러, 플랜트 220억 달러로 구성
- 영국 주택시장은 경기호조세에 힘입어 2018년까지 연 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국 건설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

<영국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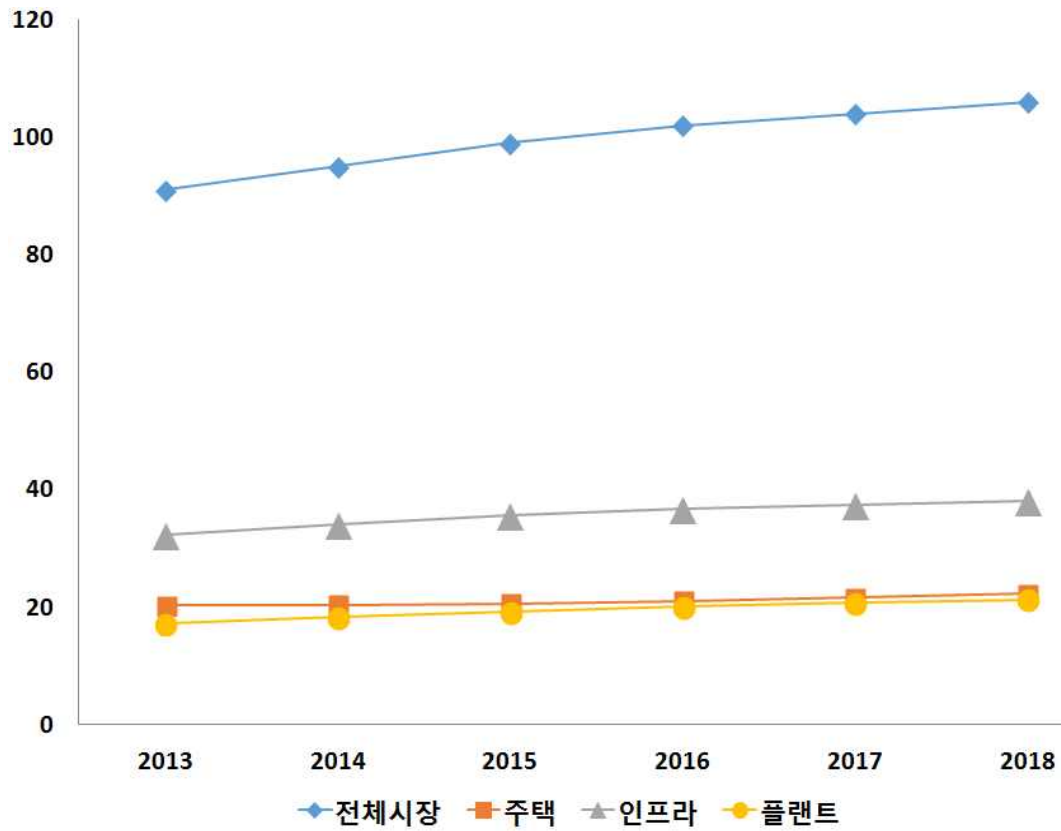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 2014년 기준 폴란드 건설시장 규모는 950억 달러이며, 2018년까지 연 3%씩 성장할 전망
- 폴란드는 유럽의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인프라 및 플랜트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폴란드 인프라(340억 달러) 및 플랜트(180억 달러)로 두 시장이 전체 건설시장 비중에서 55%를 차지

<폴란드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II. 해외건설 시장 및 기업 동향

1. 해외건설 시장 동향

□ 201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8.5조 달러에 달하나 민간 건설기업들이 접근 가능한 해외건설³⁾시장 규모는 5,500억 달러 수준

-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5,500억 달러로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불과
- 접근 가능한 시장이 6.5%에 불과한 이유는 주택 및 인프라 건설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민간 부분의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
- 대규모 건설사업의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공공사업에 대한 민영화는 세계 건설산업의 큰 흐름임.
 - 세계 각국 정부들은 부족한 예산 문제를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음.
 - 민간 건설회사들이 건설 후 운영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모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 세계 건설산업의 흐름을 대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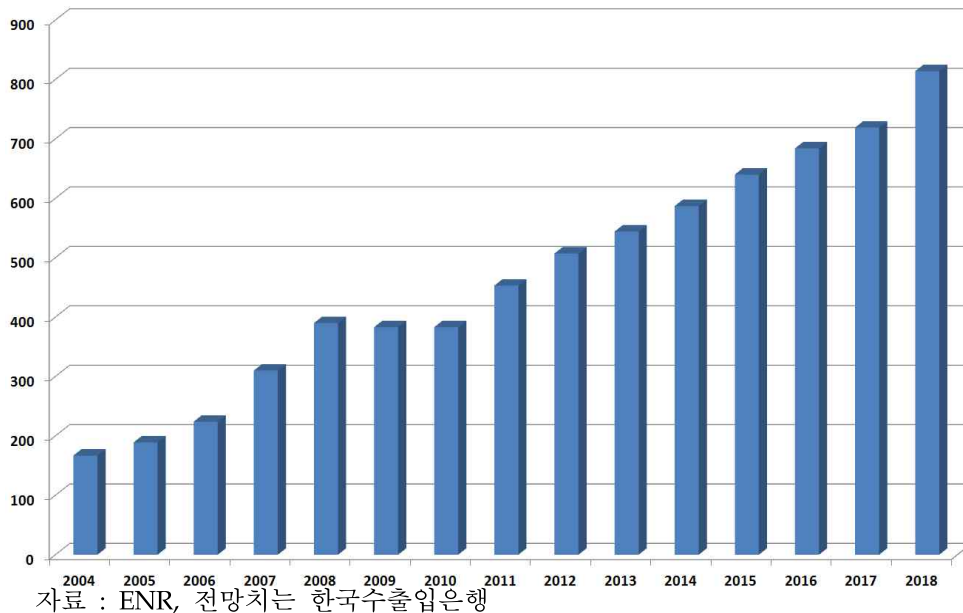
□ 세계 건설산업의 민영화 바람으로 해외건설시장 규모가 2018년 8,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 2004년 1,670억 달러에 불과했던 해외건설시장 규모가 2013년 5,440억 달러 규모로 성장
- 2015년 해외건설시장은 6,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8,100억 달러 시장에 달할 전망
- 2018년까지 세계 건설시장은 연 3~4%의 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건설시장은 연 7% 이상 고성장세를 보일 전망
 - 세계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계 각국 정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는 불가피한 선택
 - 민영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외건설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이어질 전망

3) 해외건설시장 : 외국 건설기업에게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시장

<해외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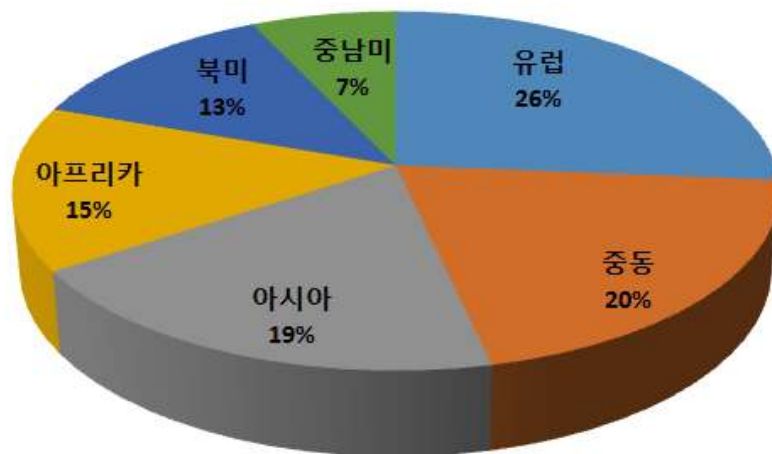


□ 2013년 기준 지역별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살펴보면 아시아가 27%로 최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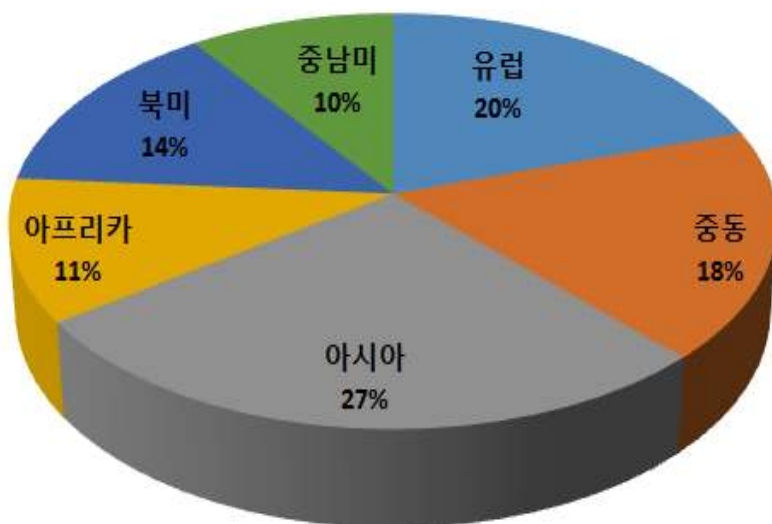
- 2009년 19%에 불과했던 아시아 지역의 해외건설 시장 비중이 2013년 27%로 증가
 - 타 지역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이 해외건설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
 - 아시아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패권을 두고 중국 기업과 해외 선진기업간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
- 이에 반해 유럽, 중동지역은 2012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 중
 - 유럽 및 중동의 해외건설 비중 하락은 유럽의 경우 정부 재정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의 경우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악화때문
 - 유럽의 경우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가 시행되고 있어, 신규 건설 수요가 전년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유가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2015년 중동 해외건설시장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과거 주목 받았던 중남미시장은 정치불안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시장 비중이 정체인 상황
-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시장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
-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적으로 여전히 불확실한 경기상황은 건설 수요 증가의 걸림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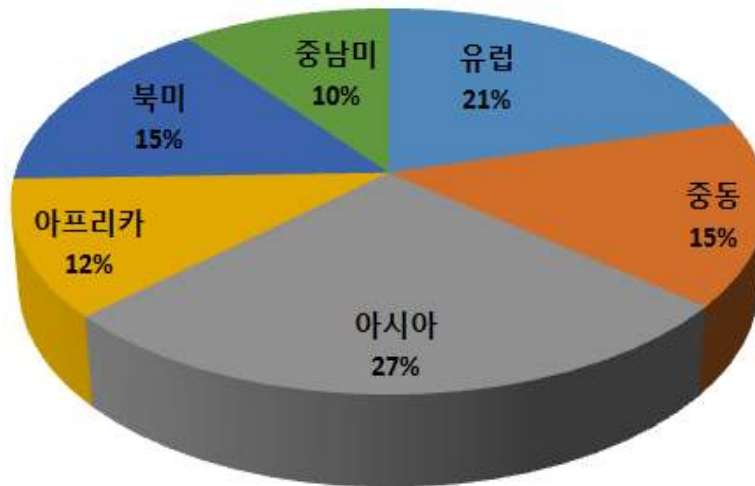
<2009년 지역별 해외건설시장 비중 현황>



<2012년 지역별 해외건설시장 비중 현황>



<2013년 지역별 해외건설시장 비중 현황>



자료 : ENR

□ 2013년 기준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분야가 1,369억 달러로 최대 시장

-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도로·교통, 항만, 전력, 상수도 등은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
- 반면 세계적 경기침체 영향으로 제조, 통신 등 산업시설 관련 투자는 저조한 상황
- 개도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에도 인프라 관련 시장 수요는 양호할 전망

□ 2013년 기준 국가별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스페인 14.7%로 최대이며, 그 뒤를 중국, 미국, 프랑스 순

- 2013년 스페인 해외건설 실적은 798억 달러로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중남미 등 전 지역에서 매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음.
- 스페인 기업들은 자국내 건설산업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과감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2년 이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건설강국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
- 스페인 주요 13개 건설기업들 매출의 80% 이상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연 3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2013년 공종별 해외건설시장 현황 >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시장규모	증가율
도로·교통	137	5.4
석유화학	128	6.7
건축	112	8.7
전력	57	9.6
산업시설	33	32
상수도	16	6.7
하수도	10	△2.7
제조공장	7	0
통신	6	0
유해폐기물	1	△50
기타	37	△12
합계	544	7.3

자료 : ENR

- 2012년 670억 달러로 세계 1위 해외건설 실적을 기록했던 중국은 2013년 790억 달러로 2위로 내려앉음.
 - 스페인과 달리 중국의 해외건설 매출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70%가 집중되어 있음.
 -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건설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중국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경우 수주 경쟁이 과거대비 더욱더 치열해 질 전망
- 2013년 미국 해외건설 수주액은 709억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09년 이후 연 10%씩 성장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순위는 6위로 전년과 동일

□ 2006년 해외건설 수주 증가율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31%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

- 그 뒤를 스페인 30%, 중국 25%, 미국 9%, 독일 8%, 프랑스 6%
- 해외건설시장에서 전통적인 강자였던 미국을 밀어내고 스페인 및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중동지역에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건설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함.

<2013년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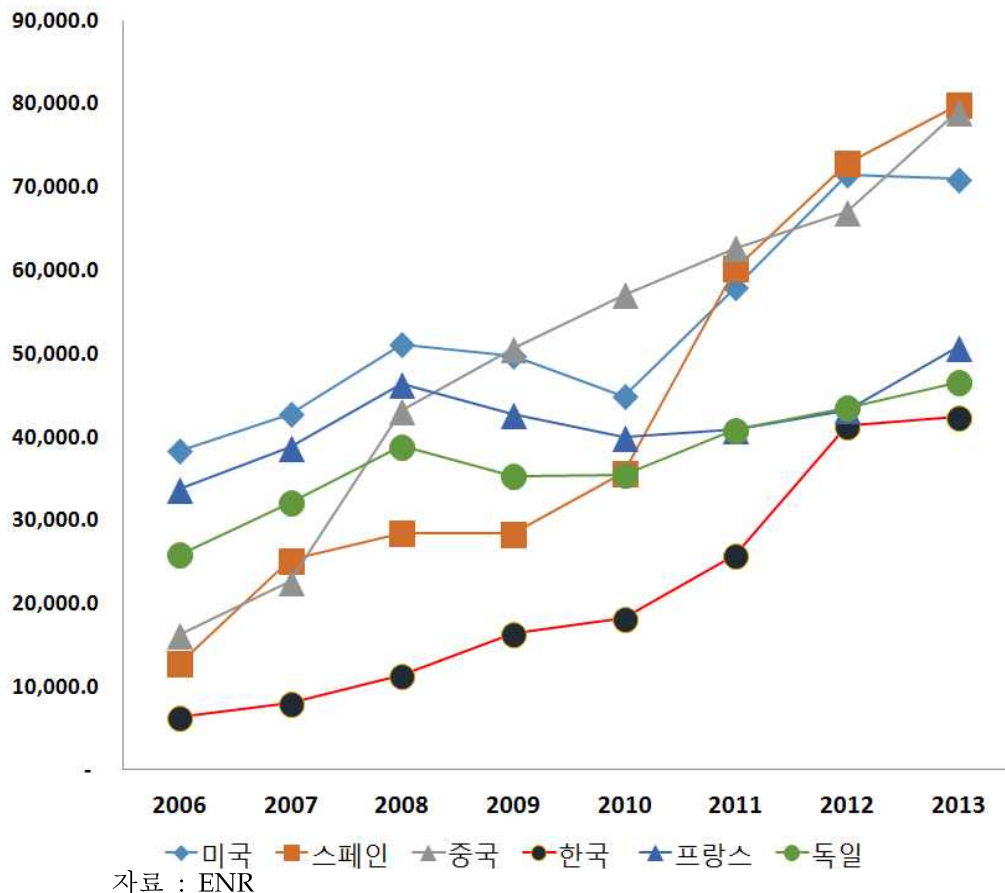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매출	비중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캐나다	중남미
스페인	79.8	14.7	4.3	20.3	28.4	17.5	15.9	0.3	16.3
중국	79	14.5	13.7	25.4	30.3	2.5	0.8	0.3	5.9
미국	70.9	13	7.6	22.9	1	7	NA	23.3	9
프랑스	50.7	9.3	1.9	7.3	5.9	25.2	4.3	3	3
독일	46.5	8.6	1.6	23.1	0.4	7.6	11.8	1.4	0.4
한국	42.4	7.8	21.6	14.5	3	0.3	0.2	0.5	2.1
이탈리아	28.9	5.3	7.4	3.5	6.4	4.9	1	1.1	4.4
일본	22.2	4.1	1.6	15.3	0.8	0.6	2.7	0.4	0.7
터키	20.4	3.8	6.3	3.6	2.1	8.2	0.06	0	0.1
브라질	12.9	2.4	0.05	0	2.9	0.06	0.1	0	9.7
호주	10.6	1.9	0.8	4.3	0.09	1	2.6	1.3	0.2
네덜란드	9.9	1.8	1.1	1.2	0.6	5.9	0.8	0	0.2
영국	5.9	1.1	2	1.2	0.7	1.5	0.03	0.12	0.3
캐나다	1.1	0.3	0.1	0.01	0.1	0.25	0.43	NA	0.2
기타	62	11.4	13.5	3.4	4.7	28.9	7.4	0.26	2.2
합계	543	100	84	146	62	111	48	34	56

자료 : ENR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 증가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해외건설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세계 Top 250 건설 회사 중 14개 국가에 86%인 216개사가 포진해 있음.

○ 2013년 기준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 특징을 살펴보면 국력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진국 기업에 수주가 집중되어 있음.

- 중국이 62개 사로 최대이며, 터키 42개, 미국 31개, 이탈리아 16개, 스페인 13개, 한국 13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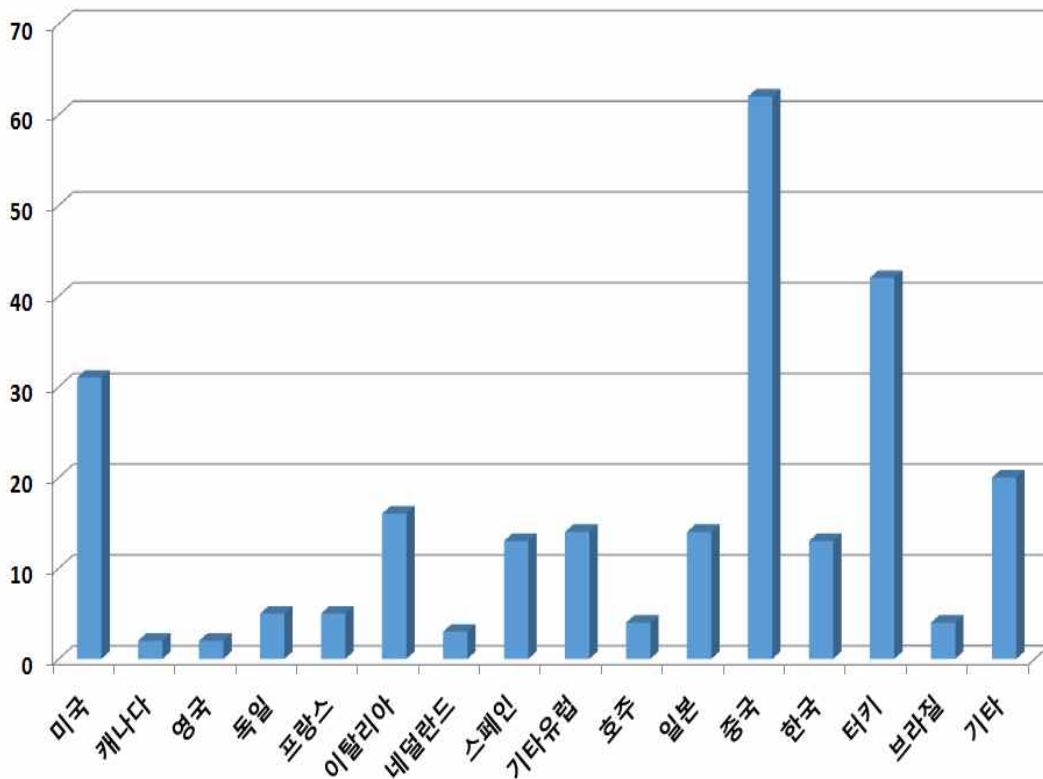
○ 2013년 매출기준 세계 30대 건설회사의 국적을 살펴보면 유럽 14개, 중국 5개, 한국 5개, 미국 4개, 일본 1개, 브라질 1개

○ 세계 Top 30 기업들의 순위 변동은 크게 없으나, 삼성물산은 지난해 36위에서 17위로 약진함.

○ 스페인 Grupo ACS사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1위를 기록

<2013년 기준 상위 250개 해외건설사 국가별 현황 >

(단위 : 개)



자료 : ENR

□ 2013년 기준 상위 30개 기업들의 해외건설 매출액은 3,360억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62%를 차지

- 상위 30개 해외건설사들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62%에 달하며, 유럽 및 미국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상위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높은 협상력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아시아 지역에서의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아시아 건설기업들의 자국내 매출 비중이 유럽 및 북미 기업 대비 높음.
 - 2013년 자국과 해외시장을 포함한 총 매출액으로 기준으로 살펴보면 1위~4위까지 기업이 모두 중국 건설기업
 - 2013년 중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사 24%를 제외하고는 10% 미만
 - 우리나라 건설사의 해외매출 비중은 40~50% 정도 중국 건설사 대비 높으나, 유럽 및 북미 건설사들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섬.

<2010년 기준 세계 30대 건설사 해외건설 매출액>

(단위 : 십억 달러)

세계 순위		업체명	소속국	매출액		
'11	'10			해외	자국	합계
1	1	Hochtief AG	독일	27.4	1.6	29.0
2	2	Vinci	프랑스	16.6	28.5	45.1
3	4	Bechtel	미국	12.5	7.2	19.7
4	5	Bouygues	프랑스	12.4	18.3	30.7
5	6	Skanska AB	스웨덴	11.6	3.0	14.6
6	7	Saipem	이탈리아	11.6	0.5	12.1
7	9	Fluor Corp	미국	11.5	5.7	17.2
8	3	Strabag SE	오스트리아	10.9	1.9	12.8
9	10	Technip	프랑스	7.9	0.2	8.1
10	11	FCC, Fomento de Constr. Y Contratasa SA	스페인	7.5	8.5	16.0
11	13	China Communications Const. Group Ltd	중국	7.1	33.3	40.4
12	18	Grupo ACS	스페인	6.6	14.0	20.6
13	8	Bilfinger Berger SE	독일	6.3	4.5	10.8
14	12	KBR	미국	5.9	1.8	7.7
15	15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브라질	5.8	4.2	10.0
16	14	Lend Lease Group	호주	5.6	2.8	8.4
17	17	Royal BAM Group NV	네덜란드	5.4	4.4	9.8
18	19	Consolidated Contractors Group	그리스	5.3	0.0	5.3
19	16	Balfour Beatty	영국	5.1	7.3	12.4
20	22	China state Const. Eng'ing Corp	중국	4.8	44.1	48.9
21	**	OHL	스페인	4.6	1.9	6.5
22	24	Petrofac Ltd	영국	4.4	0.0	4.4
23	23	현대건설	한국	4.3	4.6	8.9
24	41	Sinohydro Group Ltd	중국	4.0	11.9	15.9
25	21	Leighton Holdings Ltd	호주	3.7	14.8	18.5
26	26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	중국	3.5	1.2	4.7
27	46	China Petroleum Eng'g&Const. Corp	중국	3.5	1.4	4.9
28	20	Foster Wheeler AG	미국	3.5	0.5	4.0
29	25	China Railway Const. Corp. Ltd	중국	3.4	72.8	76.2
30	34	Ferrovial Agroman SA	스페인	3.3	2.8	6.1
합계				226.0	303.7	529.7

자료 : ENR

<2011년 기준 세계 30대 건설사 해외건설 매출액>

(단위 : 십억 달러)

세계 순위		업체명	소속국	매출액		
'12	'11			해외	자국	합계
1	1	Hochtief AG	독일	31.9	1.9	33.8
2	12	Grupo ACS	스페인	31.1	11.0	42.1
3	2	Vinci	프랑스	18.7	33.7	52.4
4	8	Strabag SE	오스트리아	17.3	2.7	20.0
5	3	Bechtel	미국	16.7	8.3	25.0
6	6	Saipem	이탈리아	14.1	0.2	14.3
7	7	Fluor Corp	미국	13.5	5.2	18.7
8	4	Bouygues	프랑스	12.6	19.0	31.6
9	5	Skanska AB	스웨덴	12.3	3.9	16.2
10	11	China Communications Const. Group Ltd	중국	9.5	36.5	46.0
11	9	Technip	프랑스	9.3	0.2	9.5
12	10	FCC, Fomento de Constr. Y Contratas SA	스페인	8.6	7.7	16.3
13	15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브라질	7.3	6.0	13.3
14	13	Bilfinger Berger SE	독일	7.1	4.7	11.8
15	34	삼성엔지니어링	한국	5.9	2.2	8.1
16	19	Balfour Beatty PLC	영국	5.8	7.7	13.5
17	18	Consolidated Contractors Group	그리스	5.5	0.0	5.5
18	14	KBR	미국	5.4	1.6	7.0
19	17	Royal Bam Group NV	네덜란드	5.3	4.6	9.9
20	22	China state Const. Eng'ing Corp	영국	5.2	0.0	5.2
21	21	OHL SA	스페인	4.5	1.9	6.4
22	20	China State Const. Eng'g Corp	중국	4.5	63.8	68.3
23	24	Sinohydro Group Ltd	중국	4.4	13.6	18.0
24	26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	중국	4.3	1.1	5.4
25	23	현대건설	한국	4.2	4.4	8.6
26	40	Abeinsa SA	스페인	4.1	1.9	6.0
27	60	PCL Const. Enterprises Inc	미국	3.9	1.7	5.6
28	25	Leighton Holdings Ltd	호주	3.9	17.3	21.2
29	35	JGC Corp	일본	3.9	0.8	4.7
30	29	China Railway Const. Corp. Ltd	중국	3.8	74.1	77.9
합계				284.6	337.7	622.3

자료 : ENR

<2012년 기준 세계 30대 건설사 해외건설 매출액>

(단위 : 십억 달러)

세계 순위		업체명	소속국	매출액		
'13	'12			해외	자국	합계
1	2	Grupo ACS	스페인	42.8	7.9	50.7
2	1	Hochtief AG	독일	34.6	1.9	36.5
3	5	Bechtel	미국	23.3	6.1	29.4
4	3	Vinci	프랑스	18.4	31.9	50.3
5	7	Fluor Corp	미국	17.2	5.1	22.3
6	4	Strabag SE	오스트리아	16.0	2.6	18.6
7	8	Bouygues	프랑스	14.2	19.7	33.9
8	6	Saipem	이탈리아	13.8	0.2	14.0
9	9	Skanska AB	스웨덴	13.3	3.9	17.2
10	10	China Communications Const. Group Ltd	중국	11.2	36.1	47.3
11	11	Technip	프랑스	10.3	0.2	10.5
12	13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브라질	9.3	5.6	14.9
13	15	삼성엔지니어링	한국	8.7	2.0	10.7
14	12	FCC, Fomento de Constr. Y Contratas SA	스페인	8.4	6.5	14.9
15	25	현대건설	한국	7.8	4.7	12.5
16	14	Bilfinger SE	독일	6.8	4.3	11.1
17	16	Balfour Beatty PLC	영국	6.0	7.3	13.3
18	20	Petrofac Ltd	영국	5.7	0.0	5.7
19	19	Royal Bam Group NV	네덜란드	5.6	4.2	9.8
20	23	Sinohydro Group Ltd	중국	5.5	14.6	20.1
21	17	Consolidated Contractors Group	그리스	5.4	0.0	5.4
22	27	PCL Const. Enterprises INC	미국	5.3	1.5	6.8
23	21	OHL SA	스페인	5.1	1.8	6.9
24	22	China State Const. Eng'g Corp	중국	5.0	76.4	81.4
25	24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	중국	4.9	0.6	5.5
26	40	대림산업	한국	4.8	3.9	8.7
27	71	Salini SPA	이탈리아	4.4	1.0	5.4
28	32	GS건설	한국	4.4	4.1	8.5
29	18	KBR	미국	4.3	1.7	6.0
30	26	Abein SA	스페인	4.3	1.2	5.5
합계				326.8	257.0	583.8

자료 : ENR

<2013년 기준 세계 30대 건설사 해외건설 매출액>

(단위 : 십억 달러)

세계순위		업체명	소속국	매출액		
'14	'13			해외	자국	합계
1	1	Grupo ACS	스페인	44.0	7.0	51.0
2	2	Hochtief AG	독일	34.8	2.2	37.0
3	3	Bechtel	미국	23.6	7.1	30.7
4	4	Vinci	프랑스	20.3	33.8	54.1
5	5	Fluor Corp	미국	16.8	5.3	22.1
6	6	Strabag SE	오스트리아	15.4	2.6	18.0
7	7	Bouygues	프랑스	14.8	21.1	35.9
8	9	Skanska AB	스웨덴	14.1	4.3	18.4
9	10	China Communications Const. Group	중국	13.2	40.9	54.1
10	11	Technip	프랑스	12.2	0.2	12.4
11	8	Saipem	이탈리아	12.1	0.2	12.3
12	12	Contrutora Norberto Odebrecht	브라질	9.9	5.2	15.1
13	15	현대건설	한국	8.7	5.1	13.8
14	**	Ferrovial	스페인	7.4	3.5	10.9
15	13	삼성엔지니어링	한국	7.1	2.2	9.3
16	16	Bilfinger SE	독일	6.9	4.4	11.3
17	36	삼성물산	한국	6.3	6.6	12.9
18	19	Royal Bam Group NV	네덜란드	5.9	3.7	9.6
19	30	Abeinsa SA	스페인	5.8	0.9	6.7
20	24	China state Const. Eng'ing Corp	중국	5.7	92.2	97.9
21	18	Petrofac Ltd	영국	5.7	0.0	5.7
22	22	PCL Const. enterprises Inc.	미국	5.5	1.8	7.3
23	20	Sinohydro Group Ltd	중국	5.3	15.3	20.6
24	21	Consolidated Contractors Group	그리스	5.3	0.0	5.3
25	25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	중국	5.3	0.5	5.8
26	37	CB&I	미국	5.2	3.7	8.9
27	32	JGC Corp	일본	4.8	0.4	5.2
28	34	China Railway Group Ltd	중국	4.8	84.1	88.9
29	28	GS건설	한국	4.7	4.2	8.9
30	26	대림산업	한국	4.4	3.7	8.1
합계				336.0	362.2	698.2

자료 :ENR

□ 2013년 기준 세계 30위 설계회사 중 아시아 기업은 전무

- 상위 30개 설계 회사 중 미국 기업이 11개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캐나다 4개, 영국 3개, 호주 2개, 네덜란드 2개 순
- 건설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설계 분야 기술역량이 미국 및 유럽 기업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음.
- 건설 및 토목 분야에서 아시아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으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설계 분야의 경우 미국 및 유럽기업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2013년 기준 세계 30대 설계사 해외 매출액>

(단위 : 십억 달러)

세계 순위		업체명	소속국	해외 매출액	해외 매출 비중(%)
'14	'13				
1	1	Worleyparsons Ltd	호주	4,553.8	82
2	7	Jacobs	미국	3,691.2	54
3	2	Flour Corp	미국	3,522.0	78
4	4	Aecom Technology Corp	미국	3,323.9	46
5	3	Fugro NV	네덜란드	3,190.0	95
6	5	Arcadis NV	네덜란드	2,984.0	89
7	6	AMEC	영국	2,356.5	47
8	10	Dar Al-handasah Consultants	이집트	2,061.4	100
9	9	Bechtel	미국	1,699.0	67
10	8	SNC-Lavalin Inc	캐나다	1,690.4	48
11	12	CH2M Hill	미국	1,640.3	46
12	14	Technip	프랑스	1,496.0	99
13	15	Mott Macdonald	영국	1,470.3	73
14	16	WSP	캐나다	1,427.1	61
15	11	KBR	미국	1,364.2	77
16	13	URS Corp	미국	1,358.4	26
17	18	Tecnicas Reunidas	스페인	1,250.4	92
18	19	Arup Group Ltd	영국	1,139.6	73
19	17	Hatch Group	캐나다	1,114.5	62
20	21	Atkins	영국	1,076.5	44
21	24	Ramboll Group A/S	덴마크	943.0	68
22	22	Parsons Brinckerhoff	미국	924.4	54
23	23	CB&I	미국	885.9	42
24	28	Stantec Inc	캐나다	885.4	41
25	25	Tetra Tech Inc	미국	788.0	31
26	29	Cardno Ltd	호주	780.2	65
27	42	Wood Group Mustang Inc	미국	735.3	59
28	30	Golder Associates Corp	미국	709.0	58
29	26	Grontmij NV	네덜란드	709.0	70
30	35	Cowi	덴마크	695.7	71
합계				47,748.6	-

자료 : ENR

2. 주요 해외건설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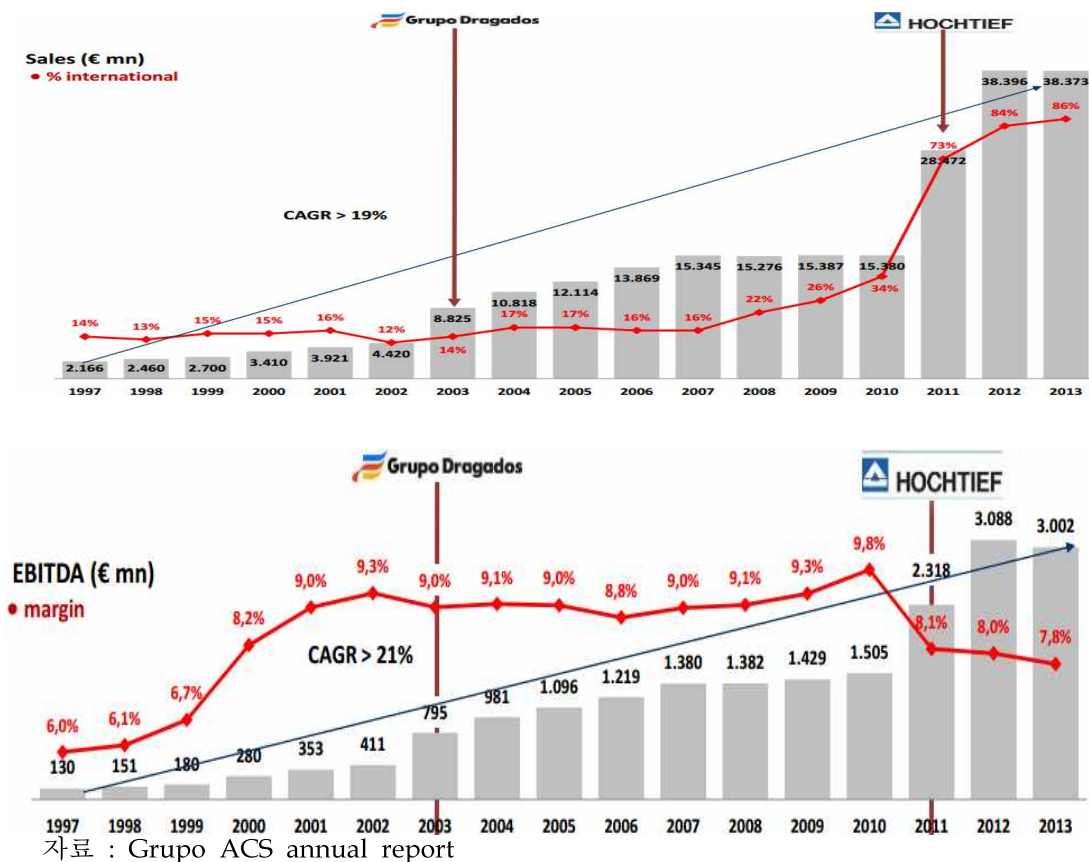
가. Grupo ACS

□ Grupo ACS는 2013년 해외건설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건설회사

- Grupo ACS사의 2013년 해외건설 매출액은 44억 달러이며, 자국 매출액은 7억 달러로 해외건설 비중이 86%를 차지
- 2010년 해외건설 매출이 66억 달러로 해외건설 수주액 순위가 12위에 불과했으나, 2011년 Hochtief사를 인수·합병하면서 2012년 이후 세계 최대 해외건설 회사로 발돋움함.
- 해외건설 2위 기업인 Hochtief사 지분 60%를 확보한 후 외형적으로 급성장한 대표적인 스페인 기업
- 해외건설 매출액 비중도 2010년 34% 불과했으나, 2011년 73%, 2013년 86%로 급성장

<2013년 Grupo ACS사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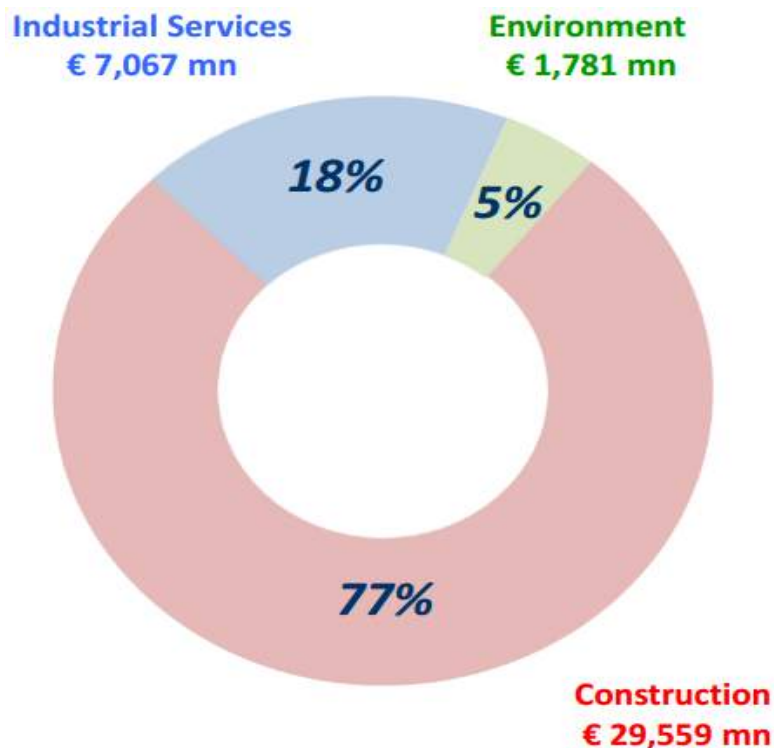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 Grupo ACS의 사업부문은 건설, 환경, 산업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에너지 및 환경, 산업인프라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대
 - 2013년 매출액 중 77%가 건설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서비스 18%, 환경 5% 순
 - 2013년 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건설분야는 2.6%에 불과하나, 산업서비스 13.3%, 환경 15.4%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
 - 환경사업부문은 폐기물 처리(waste treatment), 거리청소 및 폐기물 수집과 재활용, 수자원 관리에 대한 도시환경관리(urban services), 그리고 항만물류, 복합운송 등의 물류사업(logistics)으로 구성
 - 산업서비스부문은 전력, 통신, 가스 수송 및 배급 관리, 투자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며, Grupo Cobra(6개 계열사)와 Dragados Industrial(9개 계열사)을 중심으로 운영

<2013년 Grupo ACS사 분야별 매출 비중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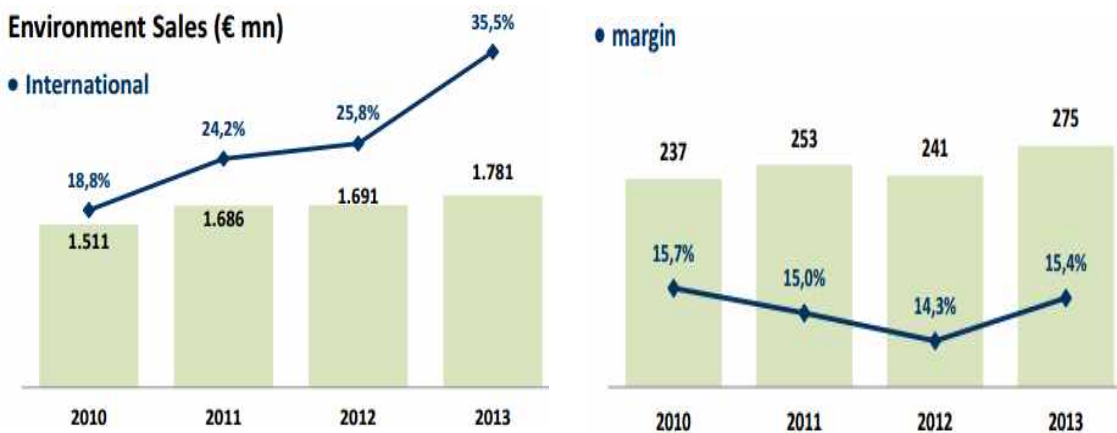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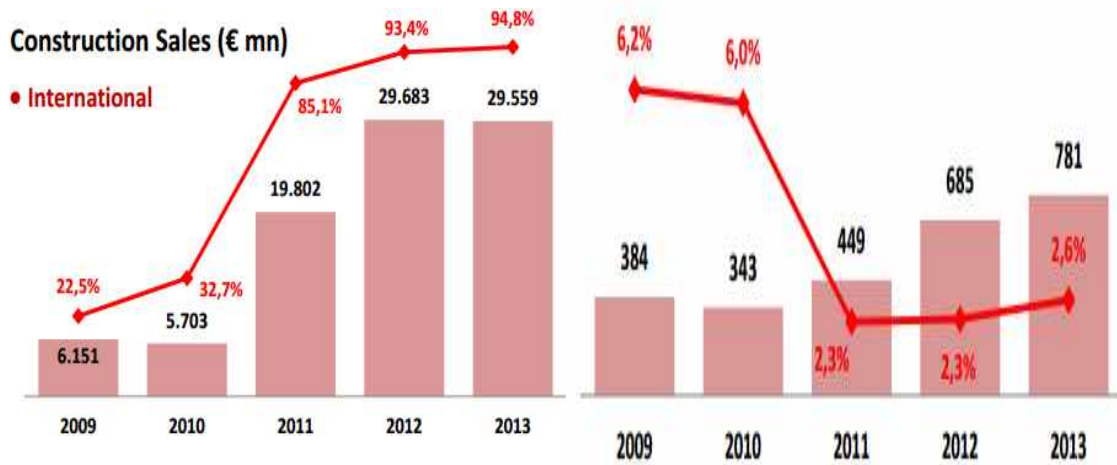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Grupo ACS annual report

<2013년 Grupo ACS사 분야별 매출액 및 영업실적>

(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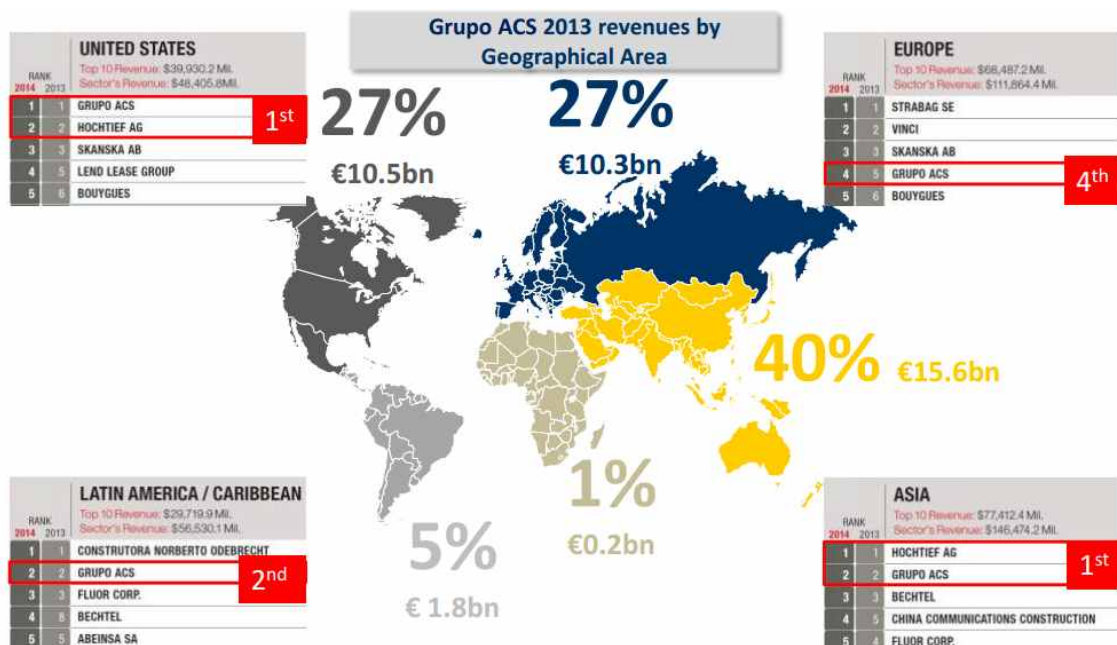


자료 : Grupo ACS annual report

□ 2013년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40%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

- 유럽계 건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 매출액보다 아시아 지역의 매출액이 50% 이상 높음.
- 북미지역 매출액도 105억 유로로 북미지역에서도 선전하고 있음.
- 지역 다변화 전략을 통해 특정 국가의 경기변동에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음.

<2013년 Grupo ACS사 분야별 매출액 및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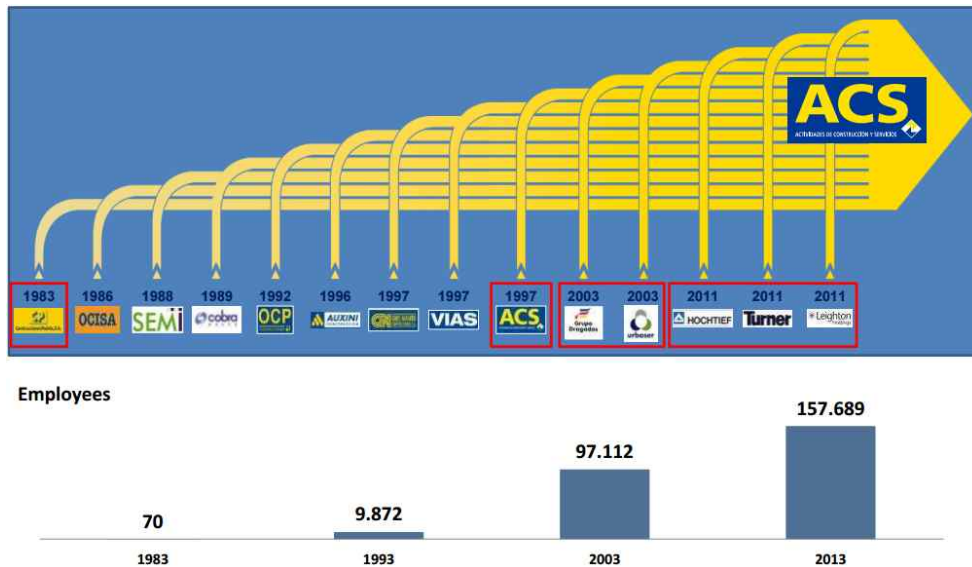


자료 : Grupo ACS annual report

□ Grupo ACS 성장 전략의 핵심은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 Grupo ACS사는 M&A를 통해 외형 확대, 진출지역 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해외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음.
- 외형 확대를 통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음.
- 1983년 70명에 불과했던 종업원 수가 2013년 157,000명으로 증가함.

<Grupo ACS사 M&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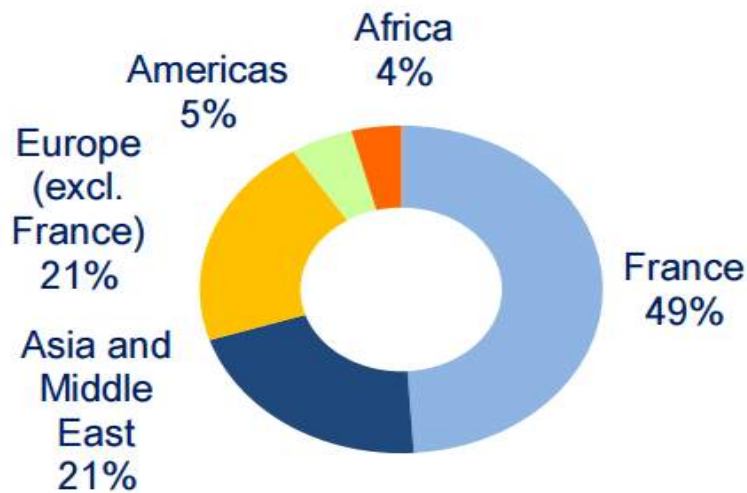
자료 : Grupo ACS annual report

나. Bouygues

□ 2013년 기준 해외건설 매출액은 148억 달러로 해외건설 매출액 기준 세계 7위 기업

- 2013년 Bouygues사 매출액은 359억 달러로 이 중 국내 매출 211억 달러, 해외 매출이 148억 달러로 해외매출 비중이 41%를 차지
- Bouygues는 타 산업으로의 신사업 진출과 건설사업 전·후방 영역으로의 진출, 두가지 방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 지역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프랑스 이외의 유럽지역이 21%, 아시아 21% 순
 - 향후 아시아 지역을 전략적 지역으로 삼고, 이 지역 진출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Bouygues의 해외 건축부문 매출액은 최근 10년 간 연평균 성장률 9.7%, 토목부문은 연평균 성장률 8.7%로 성장
- Bouygues의 경우 자국시장에서 건축과 토목 상품을 유사한 비중으로 유지해 온 것과 달리, 해외시장에서는 토목 상품을 중심으로 진출
 - 2011년 기업의 해외 매출에서 토목부문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자국시장에서는 건축과 토목부문이 각 44%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

<Bouygues사 지역별 매출 비중>



자료 : Bouygues annual report

□ Bouygues사는 일찍이 사업의 금융조달, 설계, 건설, 운용,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full-service, full management를 추구

- 고객에게 비용, 일정, 품질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개념 아래 종합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종합 서비스 전략을 추진
- 도로사업 부문의 Colas는 도로의 건설에서부터 운영 및 자재생산까지 도로사업과 관련한 전 분야에 진출
 - Colas의 사업 영역은 핵심이 되는 도로건설 사업과 함께 골재, 도로 포장재, 콘크리트 등 도로건설 자재 생산에까지 확대
- 건설부문의 이러한 사업 전반에 걸친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대형 공공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사업 참여
- 민간 자금을 투자하는 PPP⁴⁾, 혹은 PFI⁵⁾ 사업의 수주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금융공학 역량, DB계약사업의 수행 역량, 빌딩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

4)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 개발도상국에 개발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접근 방식

5)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도로, 철도 등의 건설과 운영, 유지관리, 사업자금의 도입 등 전 과정을 건설회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구축방식으로서

□ 대규모의 인수합병은 지역 진출보다는 핵심 사업 영역의 확대 목적

- 1986년 도로공사 부문 세계 1위 기업이었던 Screg를 인수하며 토목 분야 일류 기업으로 부상
- 철도 및 전력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알스톰사의 지분을 30%로 확대하고 양 기업의 협력을 추구
-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인수합병보다는 종합 건설 역량을 통한 대형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
 - Bouygues 건설과 콜라스는 알스톰의 교통부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원 조달, 설계, 건설, 운용 등이 포함된 PPP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BOUYGUES 건설과 알스톰의 전력부문은 에너지 및 지능형 전력망 개발 분야에도 진출

다. Strabag

□ 2013년 기준 해외건설 매출액이 154억 달러로 해외 건설사 순위 6위 기업

- 2013년 총 매출액은 180억 달러이며, 자국 매출은 26억 달러로 해외건설 비중이 85%에 달함.
- Strabag는 토목과 건축 사업을 중점 수행해 온 기업이며, 최근에는 토목부문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여 해외 매출 중 토목부문은 54%, 건축부문은 23%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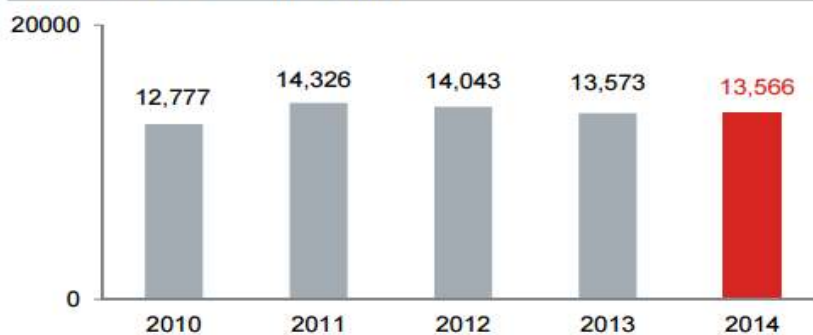
□ Strabag사의 성장전략은 진출 지역의 확대, PPP 사업에의 투자, 틈새 시장 공략, 가치사슬 확장임.

- 현재 유럽에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중동 및 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
 - 53%를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30%를 동유럽 국가에서, 그리고 12%를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 올리고 있어 유럽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유럽지역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PPP 시장 진출이 늘어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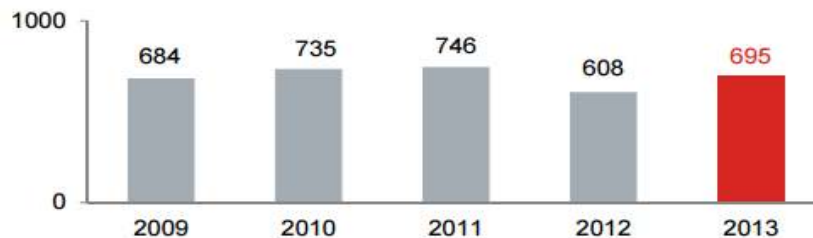
- Strabag는 인프라와 빌딩 건축과 같은 PPP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
- 2013년 PPP 사업에 지분 투자된 금액은 410만 유로이며, 전년대비 6% 증가
- 2009년 이후 지분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를 계획 중

<Strabag 경영실적 현황>

OUTPUT VOLUME (€M)



EBITDA (€M) AND EBITDA MARG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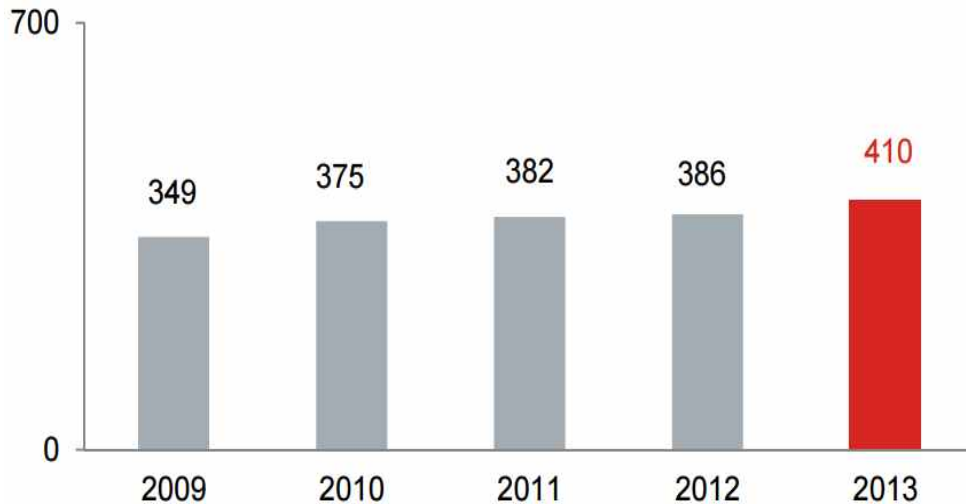


자료 : Strabag annual report

- Strabag사의 틈새시장 전략은 공공발주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민간발주 수요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바탕으로 함.
- 건축, 토목, 교통 인프라 및 터널과 같은 전통적인 건설 분야에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철도, 환경, 수로 등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을 강화
- 빌딩 및 인프라의 기획 단계로부터 건설, 운영까지가 단일 소스로부터 추진 및 수행된다면 많은 반복 작업 내지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Strabag사 PPP 사업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Strabag annual report

라. Skanska

- Skanska사는 스웨덴 회사로 2013년 해외건설 매출 기준 8위 기업이며, 총 매출액 184억 달러 중 해외건설 금액이 141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77%가 해외에서 발생
 - 2014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2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8.4억 달러
 - 매출의 87%는 건설·토목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택부분 6%, 상업용 개발부분 7% 순
 -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67%, 북미지역에서 33%가 발생
- Skanska사는 1990년대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해외 건설시장에서 성장하여 왔으며, 이후 2000년대에는 기업의 성장보다 수익성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소규모 지역 업체의 인수합병과 현지화, 그리고 Local과 Global 전략의 추진을 통해 건축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
 - 최근에는 개발사업과 토목사업에 진출하며 기업의 규모 성장보다 수익성 추구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Skanska사의 지역별 매출액 현황>

Nordic countries

43% of revenue

Employees: Around 17,000
Revenue: SEK 64.0 bn
Revenue:
Earnings:
Order backlog:



Revenue
■ Construction, 78%
■ Residential Development, 13%
■ Commercial Property Development, 9%
■ Infrastructure Development, 0%

Home markets	Construction	Residential Development	Commercial Property Developm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Sweden	●	●	●	●
Norway	●	●	●	●
Finland	●	●	●	●
Denmark			●	

Other European countries

24% of revenue

Employees: Around 17,000
Revenue: SEK 35.0 bn
Revenue:
Earnings:
Order backlog:



Revenue
■ Construction, 87%
■ Residential Development, 3%
■ Commercial Property Development, 10%
■ Infrastructure Development, 0%

Home markets	Construction	Residential Development	Commercial Property Developm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land	●	●	●	●
Czech Republic	●	●	●	
Slovakia	●			
Hungary			●	
Romania			●	
United Kingdom	●			●

North America

33% of revenue

Employees: Around 10,000
Revenue: SEK 49.9 bn
Revenue:
Earnings:
Order backlog:



Revenue
■ Construction, 97%
■ Residential Development, 0%
■ Commercial Property Development, 3%
■ Infrastructure Development, 0%

Home markets	Construction	Residential Development	Commercial Property Developm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United States	●		●	●

자료 : Skanska annual report

- 현지 로컬 기업의 역량과 대형 글로벌 기업의 역량을 함께 추구해 왔으며, 이러한 특성은 국제 건설사업 수행에 있어 강점으로 작용
- 사업의 개발과 건설은 각 지역의 시장, 고객, 공급업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회사에서 수행하며, Skanska 그룹의 브랜드와 금융력, 그리고 전문지식을 통해 뒷받침
- 사업 금액이 크지 않은 건축사업, 혹은 지역 특성이 강한 주거시설의 부문에서 현지법인의 참여 전략을 통해 성과를 거둬옴.
 - 수주물량에서 약 160억원 미만의 프로젝트 건수는 91%이며,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 건수는 2% 이하로 소규모 건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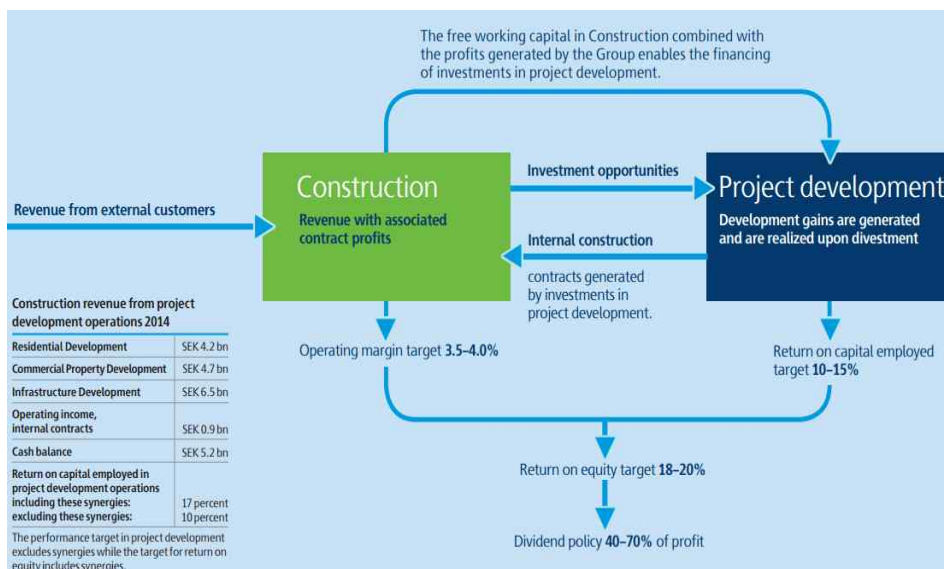
□ 1995년 이전 해외 건설기업 20위권 밖의 기업이었던 Skanska사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다른 기업들과 달리 소규모 전문업체의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점이 특징

- 1996년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남미 지역 기업들의 성공적인 인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
-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1990년대에 반해, 2000년대 이후 수익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금융역량을 바탕으로 개발사업 확대를 추진 중

- 건설 및 금융 역량과의 결합을 통한 사업개발 부분으로 확대는 Skanska사의 새로운 사업전략
- 건설 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윤은 개발부문에 투자되고, 개발부문에서 얻어진 이윤은 다시 건설부문에 투자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여 사업 운영 및 금융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Skanska사의 PPP사업은 영국(63%)과 북유럽 국가(22%)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미국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사업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

<Skanska사의 사업모델>



자료 : Skanskas annual report

마. Bechtel

- Bechtel사는 2013년 기준 매출액 307억 달러이며, 이 중 해외건설 매출액은 236억 달러
 - 매출의 77%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건설 매출 기준으로 세계 3위 건설회사
 - Bechtel사는 1980년대 말 미국 시장의 침체로 인한 경영위기 속에서 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
 - 1990년 토목 분야 매출이 90%이었으나, 2000년 대에는 플랜트 분야가 93%, 현재는 토목 30%, 플랜트 70%로 구성
-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역량 바탕으로 바탕으로 매출 지역 다변화에 나서고 있음.
 - 엔지니어링과 건설관리 역량을 강점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턴키, EPC사업 및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와 같은 사업을 수행
 -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 관리회사란 비전을 제시하며, 단순 시공보다 엔지니어링과 건설관리 역량을 강조
 - 조인트벤처와 컨소시엄을 통한 프로젝트 단위의 진출 방식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를 추진해 옴.
 - 특정 지역의 집중공략보다 다양한 지역으로의 진출 전략을 펴고 있으며, 이에 비용과 시간의 투입이 큰 인수합병 방식보다 조인트벤처와 컨소시엄 방식을 선호
 - Bechtel사의 해외진출에는 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외에 정치력과 기업 브랜드가 강점
 - 선진 국가로의 진출에는 가격이 아닌 공기단축 등 기술력이 바탕이 되나, 저개발 및 신흥국가로의 진출에는 브랜드 인지도와 정치력이 바탕

6) EPC :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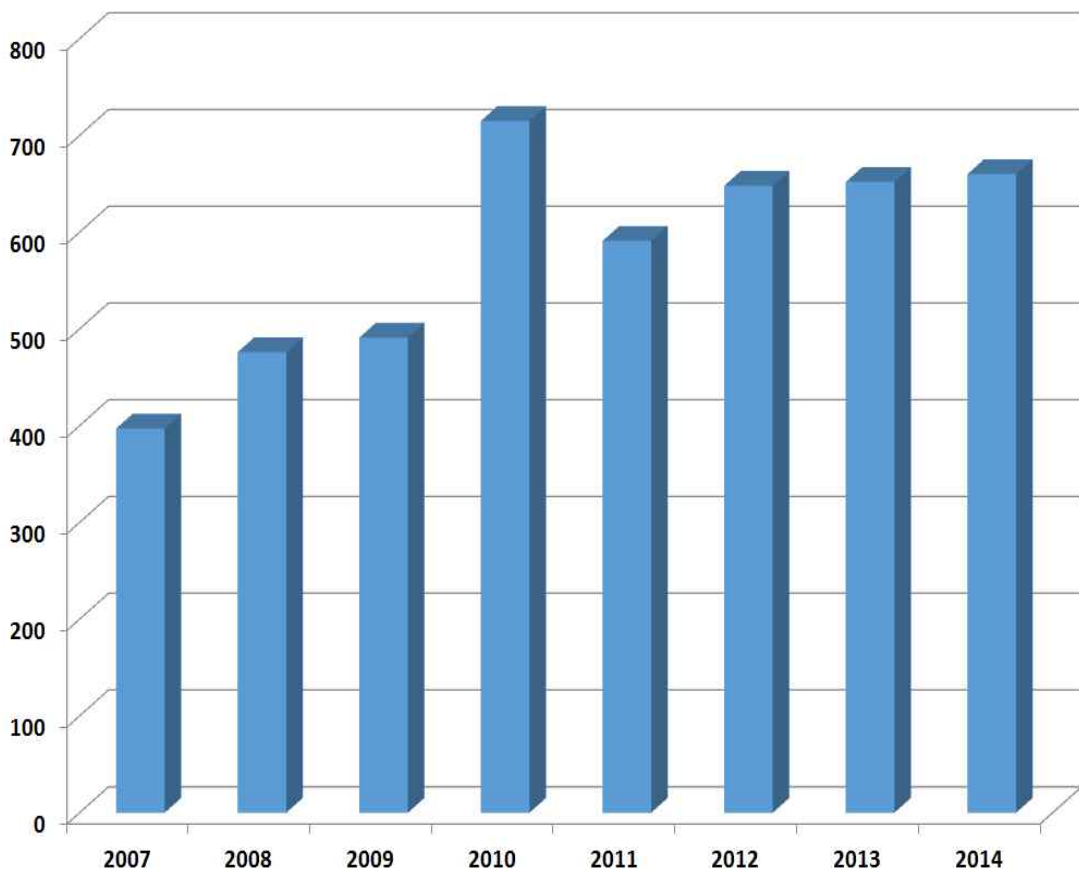
III.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동향

1. 국내 해외건설 수주 및 실적동향

- 2014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660억 달러를 기록
 - 2007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수주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1년 591억 달러, 2012년 648억 달러, 2013년 652억 달러를 기록
 - 2011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증가율은 3.7%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해외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 10%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해외건설협회

□ 2014년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중동 313억 달러, 아시아 159억 달러, 유럽 67.5억 달러 순

- 2014년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살펴보면 중동 47.4%, 아시아 24%, 유럽 10%, 중남미 10%, 북미 4.5%, 아프리카 3.3% 순
- 우리나라 수주액의 40% 이상이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동지역 경제상황에 따른 수주 변동성이 큰 상황
 - 중동지역 수주액을 살펴보면 2010년 472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61억 달러, 2014년 313억 달러로 정체 상황
 - 중동지역 수주 비중은 2009년 73%까지 높아졌다가 2013년 이후 40% 대로 낮아짐.
 - 2014년 중동지역 국가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이라크 85억 달러, 쿠웨이트 77억 달러, 알제리 44억 달러, UAE 37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29억 달러 순

□ 2015년 국내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560억 달러에 불과할 전망

- 국내 해외건설 수주의 40% 이상 차지했던 중동 지역 수주가 2014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250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2015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13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 상황
- 이란과 이라크 정치적 이슈상황으로 공사발주가 감소되고 지속적인 유가하락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지역의 프로젝트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 중동지역 발주 가능 프로젝트 규모는 국내 건설회사의 입찰 가능 규모는 약 84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규모로 감소될 전망
- 유로화 및 엔화하락에 따른 유럽 및 일본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 증가로 중동 및 아시아지역 수주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대형건설사들은 전년대비 20% 이상 절하된 유로화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상황
 - 석유화학, 정유 등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던 분야까지 유럽 건설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지역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

(단위 : 억 달러)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동	228	272	357	472	295	369	261	313
비중(%)	57.4	57.1	72.7	66.0	49.9	56.9	40.0	47.4
아시아	128	146	87.9	144	194	194	275	159
비중	32.2	30.7	17.9	20.1	32.8	29.9	42.2	24.1
유럽	14.4	11.6	4.7	3.9	3.7	5.3	7	67.5
비중	3.6	2.4	1.0	0.5	0.6	0.8	1.1	10.2
중남미	3.3	24.7	7.2	20.6	66	61.9	33.3	67.5
비중	0.8	5.2	1.5	2.9	11.2	9.6	5.1	10.2
아프리카	16.8	15	12	24	22	16.1	10.8	21.9
비중	4.2	3.2	2.4	3.4	3.7	2.5	1.7	3.3
북미	6.7	6.1	22	49.5	10	2.3	63.6	30
비중	1.7	1.3	4.5	6.9	1.7	0.4	9.8	4.5

자료 : 해외건설협회

□ 2014년 공종별 수주액은 살펴보면 플랜트 분야가 517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78%를 차지

- 2007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중 플랜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8% 수준으로 플랜트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 2014년 토목 수주액은 56억 달러로 8.4%에 불과하며, 건설 수주액은 49억 달러로 7.4% 불과
 - 세계 건설시장 중 플랜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남짓하나, 토목 및 인프라 시장은 70% 이상 차지
 - 해외건설 시장에서 플랜트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불과하므로 토목 및 건설 분야 시장 개척이 필요

<공종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토목	41	58	88	181	56
도로	17	24	49	26	28.5
철도공사	2	8	10	112	8.7
항만	17	8	11	20	7.1
기타	5	18	18	23	11.7
건설	77	78	143.0	54.0	49.0
공장	12	10	15	8	25.7
병원·호텔	17	8	10	0.8	5.6
주택·사무실	33	32	100	29	4.5
기타	15	28	18	16.2	13.2
플랜트	572	433	395	396	517
발전소	328	178	174	130	107
석유·가스	115	89	74	162	290
화학공장	27	57	76	47	42
기타	102	109	71	57	78
전기	7.7	9.5	13.0	7.6	14.0
통신	4.5	0.6	0.7	2.4	1.8
용역	12.0	11.5	8.2	9.8	21.0

자료 : 해외건설협회

□ 2014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80%에 달함.

- 2014년 상위 10개 기업들의 수주액이 524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79%에 달함.
- 2011년 이후 국내 상위 10개 평균 수주 비중이 84.5%로 이는 해외건설 수주에서 시공경험 몇 역량, 및 자본조달 역량 등 점점 더 중요해진 결과를 반영
- 해외건설 시장도 점점 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 체결이 진행되고 있어 수주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설사의 대형화는 해외건설 산업의 하나의 추세
 - 상위 30개사의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은 2014년 기준 70%에 달해 해외건설시장도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재편
 -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 및 개도국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측면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높아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화는 필수적
 - 협상력 확대, 금융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대형화는 필요하며, 컨소시엄 및 M&A를 통한 대형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

<국내 상위 10개사 수주 현황 및 비중>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위 10개사 수주액	490	557	586	524
수주 비중(%)	83	86	90	79

자료 : 해외건설협회

<최근 6년간 국내 건설사 해외수주 현황>

(단위 : 억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비중
현대건설	42	30	47	105	109	110	443	11.8
삼성 ENG	93	36.2	70.6	105	31.7	42.4	378.9	10.1
GS건설	69	47.9	41.6	44.8	52.9	59.5	315.7	8.4
삼성물산	3.6	25	46	37.9	134.8	65.4	312.7	8.3
현대 ENG	14	35	41	35.9	52.7	96.5	275.1	7.3
SK건설	39	24.8	37.2	26	48	66.8	241.8	6.4
현대중공업	45.8	44.5	11.8	36	49.9	39.7	227.7	6.1
대우건설	27.5	25.4	50	38.2	49.9	35.5	226.5	6.0
대림산업	26.4	30.9	59.2	23	39.5	24.5	203.5	5.4
포스코건설	9.3	21.9	68.9	44	17.6	23.9	185.6	4.9
두산중공업	12.5	77.4	2.1	17.9	8.2	20.9	139	3.7
한화건설	9.5	2.2	18.5	84	8.5	9.5	132.2	3.5
포스코 ENG	1.4	5.1	0.2	2.7	4.7	5	19.1	0.5
기타	98	309	97	48	45	60	657	17.5
합계	491	715	591	648	652	660	3,757	100.0

자료 : 해외건설협회

□ 국내 건설사들의 매출 및 영업실적이 2013년 이후 급속히 악화됨.

- 2011년 이후 국내 건설사들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3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악화됨.
- 영업이익의 감소의 원인은 2009~2011년까지 수주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때문
 -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저가수주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2014년 4분기까지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5년 이후 영업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유가 상황과 유로화 약세 등 외부변수로 인해 수주 경쟁이 다시금 치열해질 전망

<최근 4년간 국내외 건설사 실적현황>

(단위 : 억 달러)

기업명	2011		2012		2013		2014	
	매출	영업 이익	매출	영업 이익	매출	영업 이익	매출	영업 이익
Grupo ACS	421	34	507	40	510	40	401	28
Vinci	524	52	503	48	541	50	425	47
Fluor Corp	233	6	275	4.6	273	6.7	215	7.1
Technip	98.7	10	109	10.8	124	11.1	141	9.9
현대건설	108	6.7	120	6.9	126	7.2	157	10
삼성물산	195	3.2	230	4.5	258	3.9	258	5.9
대림산업	73	3.9	93	4.3	89	0.4	84	-2.5
GS건설	82	3.9	87	1.6	87	-8.5	86	0.04
삼성엔지니어링	85	5.7	103	6.7	89	-9.1	81	1.3

자료 : 해외건설협회

2.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 동향

□ 2013년 국가별 건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건설 경쟁력은 세계 7위 수준

- 국가별 건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3년 연속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
-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3~6위, 한국은 2012년과 동일한 7위를 기록하여,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강세가 여전히 지속
-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지표 평가결과 2012년에 이어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8위를 기록, 2011년 11위, 2012년 10위에 이은 꾸준한 상승세
-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결과에서는 미국이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2년 연속 7위를 유지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결과>

구분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					
	2013년		2012년		2011년	
순위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1	U.S.A.	100.0	U.S.A.	100.0	U.S.A.	100.0
2	China	77.2	China	88.0	China	91.4
3	Germany	73.5	Germany	78.0	Italy	81.1
4	France	68.1	Italy	76.5	U.K.	79.1
5	Spain	67.9	Austria	75.4	Germany	79.0
6	U.K.	67.9	Spain	74.7	France	77.9
7	S. Korea	67.8	S. Korea	73.8	Netherlands	76.2
8	Italy	67.0	France	73.6	Australia	74.8
9	Japan	65.4	U.K.	72.9	S. Korea	73.7
10	Austria	64.6	Japan	71.6	Belgium	73.5
11	Netherlands	64.4	Netherlands	70.5	Japan	73.1
12	Portugal	63.6	Sweden	66.6	Spain	71.8
13	Turkey	61.8	Denmark	63.5	Austria	71.3
14	U.A.E.	57.5	Canada	62.0	Portugal	70.5
15	Sweden	56.7	Belgium	61.2	Sweden	67.9
16	Canada	55.6	Ireland	61.0	Taiwan	67.9
17	Ireland	55.0	Turkey	60.8	Canada	66.6
18	Denmark	55.0	U.A.E.	60.6	Greece	66.3
19	India	54.8	Greece	60.6	Ireland	65.7
20	Greece	50.8	India	59.3	Turkey	65.4
21	Egypt	41.4	Portugal	55.7	India	65.2

자료 :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및 건설기업 역량평가 지표 평가결과>

구분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지표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지표					
	2013년		2012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1년	
순위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국가명	점수
1	China	100	China	100	U.S.A	100	U.S.A	100	U.S.A	100	U.S.A	100
2	U.S.A	96.9	U.S.A	96.9	China	88.4	Spain	75.8	Italy	84.0	Italy	94.4
3	Japan	82.7	Japan	82.2	Japan	79.6	Germany	72.6	Spain	83.1	China	93.6
4	U.K	75.8	U.K	77.0	Australia	77.8	Portugal	71.2	Germany	79.0	Germany	83.7
5	Germany	72.0	Canada	75.0	Canada	77.5	Italy	69.8	China	78.7	Portugal	83.1
6	Canada	68.4	Germany	73.1	India	75.8	France	66.6	Austria	77.0	Netherlands	82.8
7	France	67.6	France	72.6	U.K	74.9	S. Korea	66.2	S. Korea	74.7	U.K	82.2
8	S. Korea	67.6	Sweden	70.7	France	73.7	Netherlands	64.6	France	72.5	Spain	81.3
9	U.A.E	67.3	Austria	69.7	Germany	72.6	Austria	64.5	Greece	71.5	France	81.0
10	Sweden	67.1	S. Korea	69.4	Sweden	67.9	Turkey	63.7	Netherlands	71.4	Greece	80.7
11	India	64.2	India	68.9	S. Korea	67.6	China	61.5	U.K	68.7	Belgium	80.5
12	Austria	62.0	Denmark	66.9	Netherlands	67.5	U.K	61.3	Japan	63.6	S. Korea	78.3
13	Netherlands	61.3	Brazil	66.7	Denmark	67.0	Greece	59.3	Sweden	62.5	Turkey	77.9
14	Denmark	60.5	Netherlands	66.0	Austria	64.4	Japan	53.4	Ireland	62.2	Austria	76.6
15	Ireland	60.4	U.A.E	64.3	Belgium	64.2	Ireland	50.4	Denmark	59.9	Ireland	74.1
16	Italy	59.5	Belgium	63.4	Italy	63.4	Denmark	50.3	Turkey	59.2	Australia	72.5
17	Turkey	56.2	Turkey	60.9	Taiwan	62.6	U.A.E	50.2	Portugal	58.7	Taiwan	71.8
18	Spain	52.0	Italy	60.5	Spain	59.2	Sweden	49.0	Belgium	58.4	Japan	68.3
19	Portugal	48.4	Spain	57.4	Ireland	54.6	India	47.7	U.A.E	57.0	Sweden	67.9
20	Egypt	39.7	Ireland	56.5	Portugal	53.6	Canada	46.4	Canada	52.9	Denmark	58.8
21	Greece	34.7	Portugal	48.3	Turkey	48.8	Egypt	41.4	India	52.2	Canada	58.5

자료 :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가별 시공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 12위, 2012년 8위, 2013년 4위로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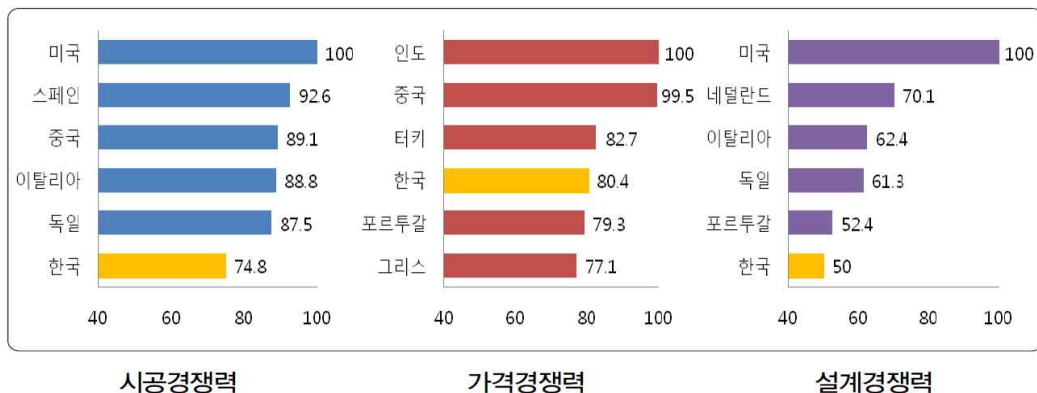
- 해외건설시장에 국내 기업들의 대형수주가 증가하면서 시공경쟁력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
- 2014년 기준 단순도급형 공사 비중은 80.4%로 여전히 높으며, 도급의 대다수는 단순시공에만 집중되어있음
 -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개발형 사업 비중이 3.1%에 불과한 상황
 - 해외건설시장의 개발형 사업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국내 기업들의 대처가 미흡한 상황

□ 가격경쟁력은 세계 4위권이나, 설계경쟁력은 미국 대비 절반 수준

- 가격경쟁력은 2011년 3위, 2012년 6위, 2013년 4위를 기록
 - 인도, 중국 대비 20% 이상 격차가 나고 있으며, 국내 건설 인건비 등을 고려해 향후 가격경쟁력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설계경쟁력은 2011년 19위, 2012년 10위, 2013년 19위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50%에 불과함.
 - 미국 및 유럽 선진국가 대비 설계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건설시장에서 성과확대를 위해선 설계분야 경쟁력 확보가 절실

<최근 3년간 국가별 건설경쟁력 평가 현황>

최근 3년간 경쟁력 평가점수 평균 비교



자료 :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DB산업은행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 기술경쟁력은 최고 수준 대비 73%이며, 기술격차는 5.4년

- 토목 분야 기술경쟁력이 78%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플랜트 분야는 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기술격차는 교통·인프라분야가 4년으로 가장 적었으며, 수자원 분야는 6.8년으로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2.8년으로 조사되었으며, 플랜트의 경우 0.3년에 불과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빠르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

<2013년 기준 건설산업 국내 기술경쟁력 현황>

주요 기술부분	최고기술 보유국	한국(%)	기술격차	한국 VS 중국
종합	미국	73.2	5.4	2.8
건축	미국	70.5	5.5	2.9
토목	일본	78.2	5.1	2.9
플랜트	미국	69.1	5.5	0.3
수자원	미국	71.9	6.8	4.7
교통인프라	미국	76.4	4.0	3.1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주력 수출산업인 플랜트 분야 경쟁력을 살펴보면 최고 수준 대비 69%에 불과한 상황

- 2014년 해외건설 수주액 660억 달러 중 517억 달러를 수주한 플랜트 분야 기술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매우 취약한 상황
-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0.3년에 불과하여 가격 위주의 수주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
- 자원개발 분야는 중국대비 4.5년 뒤쳐진 상황이며, 플랜트 전분야에 걸쳐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우려가 존재
- 플랜트부문의 원천기술 확보 척도인 특허기술 경쟁력 역시 44.9%로 매우 저조함.
- 핵심 기자재의 경우 기술격차가 5년 이상, 세계시장 점유율도 10%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국내 EPC업체들은 발주처의 요구, 기술력 차이, 또는 납기 등의 이유로 외국 선진업체로부터 조달

□ 도시 인프라, 초대형 건축, 교량, 도시재생 등 미래유망 건설기술분야에서도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며, 기술격차도 5.3년에 달함.

- 교량 및 도로·교통 분야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8% 수준으로 미래 유망 건설 기술 중 선진국과 가장 근접한 분야
- 초장대 교량기술·초고층 시공기술 등 우리나라만의 특화기술을 갖기 위해 노력 중이나, 아직 최고기술 보유국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

<2013년 기준 플랜트산업 국내 기술경쟁력 현황>

주요 기술부분	최고기술 보유국	한국(%)	기술격차	한국 VS 중국
종합	미국	69.1	5.5	0.3
발전	미국	78.3	4.8	0.7
자원개발	미국	50.9	8.7	-4.5
신재생에너지	미국	65.3	5.3	1.3
담수처리 및 환경	독일	79.7	4.0	4.4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년 기준 플랜트 기자재 국내 기술경쟁력 현황>

품 목		기술 격차	세계시장 점유율	대표기업	
				국내	외국
회 전 기 계	펌프 (API)	3년	3%	▪ 효성에바라 ▪ 현대중공업	▪ FlowServe(미) ▪ Sulzer(독)
	가스압축기	5년	2%	▪ 삼성테크윈 ▪ 광신기계	▪ Man Turbo(스) ▪ Siemens(독)
	가스터빈	10년	0.1%	▪ 삼성테크윈 ▪ 두산중공업	▪ GE(미) ▪ Siemens(독)
고 정 장 치	열교환기	2년	3%	▪ 두산중공업 ▪ LHE	▪ Alstom(프) ▪ Babcock(미)
	반응기	2년	3%	▪ 서울기계공업 ▪ 세원셀론텍	▪ Pressure Chemical(미) ▪ Buchi(독)
배 관	밸브	3년	3%	▪ 범한금속 ▪ 삼신	▪ Velan(캐) ▪ CCI(미)
전 기	변압기	1년	5%	▪ 현대중공업 ▪ 효성중공업	▪ Siemens(독) ▪ ABB(스) ▪ AREVA(프)
	고압 차단기 (GCB)	3년	2%	▪ 현대중공업 ▪ LS 산전 ▪ 효성중공업	▪ Siemens(독) ▪ ABB(스) ▪ AREVA(프)
계측 제어 장비	공장제어설비 (I & C System)	5년	0.5%	▪ 우진 ▪ 플로트론 ▪ 두온시스템	▪ Honeywell(미) ▪ Yokogawa(일) ▪ Texas Instrument(미)
패 키 지	폐열회수 보일러	1년	10%	▪ 두산중공업 ▪ 성진지오텍 ▪ BHI	▪ Sulzer(독) ▪ Alstom(프) ▪ Hitachi(일)

자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2013년 기준 미래유망 건설기술 분야 국내 기술경쟁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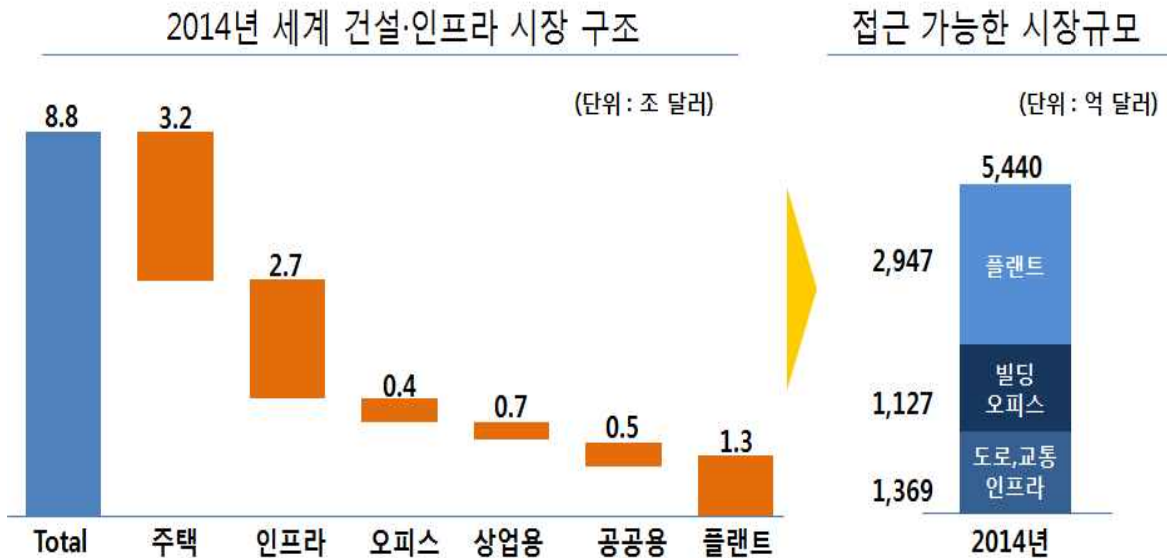
주요 기술부분	최고기술 보유국	한국(%)	기술격차	한국 VS 중국
종합	미국	72.9	5.3	3.4
도시 인프라	독일	73.2	5.3	5.4
도시재생	일본	69.8	5.8	5.5
리모델링	일본	69.3	5.6	4.1
첨단건축	독일	68.7	5.3	3.1
초대형건축	미국	71.8	5.8	1.1
교량	미국	79.5	4.8	1.9
도로 및 교통	미국	78.2	4.3	2.9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IV. 시사점 및 결론

- 세계 건설시장은 2018년까지 연 4%의 성장세를 기록하여 2018년 10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
 - 2015년 세계 건설시장은 전년대비 4% 성장한 8.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주택(3.3조 달러), 인프라(2.8조 달러), 비주택(플랜트, 오피스, 상업용, 공공분야 : 2.7조)가 3~4%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할 전망
 - 미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인프라 건설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및 남미지역은 유가하락과 경기침체로 수요가 정체될 전망
 -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18년 10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2020년까지 민간 기업들이 접근 가능한 해외건설시장의 성장률은 연 7%로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을 1.75배에 달할 전망
 - 2014년 해외건설시장은 5,440억 달러로 세계 건설시장 6%에 불과하나 2018년 8%까지 늘어날 전망
 - 세계 건설시장 중 인프라, 빌딩, 플랜트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계 건설·인프라시장에 36%를 차지하는 주택분야의 경우 외부에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음.
 - 해외건설시장의 54%를 플랜트 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25%, 나머지 21%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외건설 분야 중 도로, 교량, 항만, 교통 등 인프라시장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질 전망
 - 2013년 기준 1,360억 달러인 인프라시장은 연 8% 성장하여 2018년 1,990억 달러에 달할 전망

<세계 건설시장 중 국내 기업들의 접근 가능한 시장 분석>



□ 해외건설시장 성장 동인은 개도국 수요증가와 민영화 확대를 꼽을 수 있음.

- 개도국의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발전은 관련 건설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해외건설 시장 중 유럽 및 북미 등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불과하며, 나머지 65%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 지역 수요
 - 선진국 수요 증가율은 2020년까지 2.5%인데 반해 개도국 증가율은 6.5%에 달할 전망
 - 2020년 해외건설시장에서 개도국 비중은 70%를 넘어설 전망
- 인프라 건설 등 정부 재정 부족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기업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조달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재정 투입도 어려운 상황
 - 건설부분 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 보수 및 금융조달 등 사업 전 영역에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본참여 및 금융조달이 사업권 수주에 경쟁력으로 부상

□ 해외건설시장을 놓고 기업간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

- 해외건설시장은 선진 주요 10개국이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 유럽 건설사들의 경우 정체된 자국시장의 탈출구로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 유로화 약세로 인해 가격경쟁력도 높아진 상황
 -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시장인 중동지역에서 수주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강세지역인 중남미 및 아프리카 시장의 공략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음.
- 미국 건설사들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수익 분야인 환경 및 컨설팅 분야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AIIB(Asia Infra Investment Bank) 출범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 인프라 시장에 대한 공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
 - 중국 내수시장에 치중했던 건설기업들이 중국 금융기관들의 지원을 힘입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기술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확대될 경우 수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

□ 국내 해외건설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기술고도화와 지역다변화가 필요

- 플랜트를 포함한 국내 해외건설산업의 당면한 문제점⁷⁾은 다음과 같음.
 - 치열한 수주 경쟁 및 후발국 EPC 업체추격, 저수익 운영모델로 인한 낮은 수익성, 낮은 기자재 조달율을 꼽을 수 있음.
- 과거 자국시장에 치중했던 중국 건설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ENR사 Top 250 기업 매출 기준으로 2012년 중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은 670억 달러이었으나, 2013년 매출액은 790억 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
 - ENR사 Top 250 기업에서 중국 건설기업 수는 2012년 55개에서 2013년 62개로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매출액은 414억 달러, 기업수 15개, 2013년 매출액은 424억 달러, 기업수는 13개로 전년대비 감소함.
- 국내 기업들은 국내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유지를 위해 2009년

7) 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 수출에 따른 요소부품 수출확대 전략”,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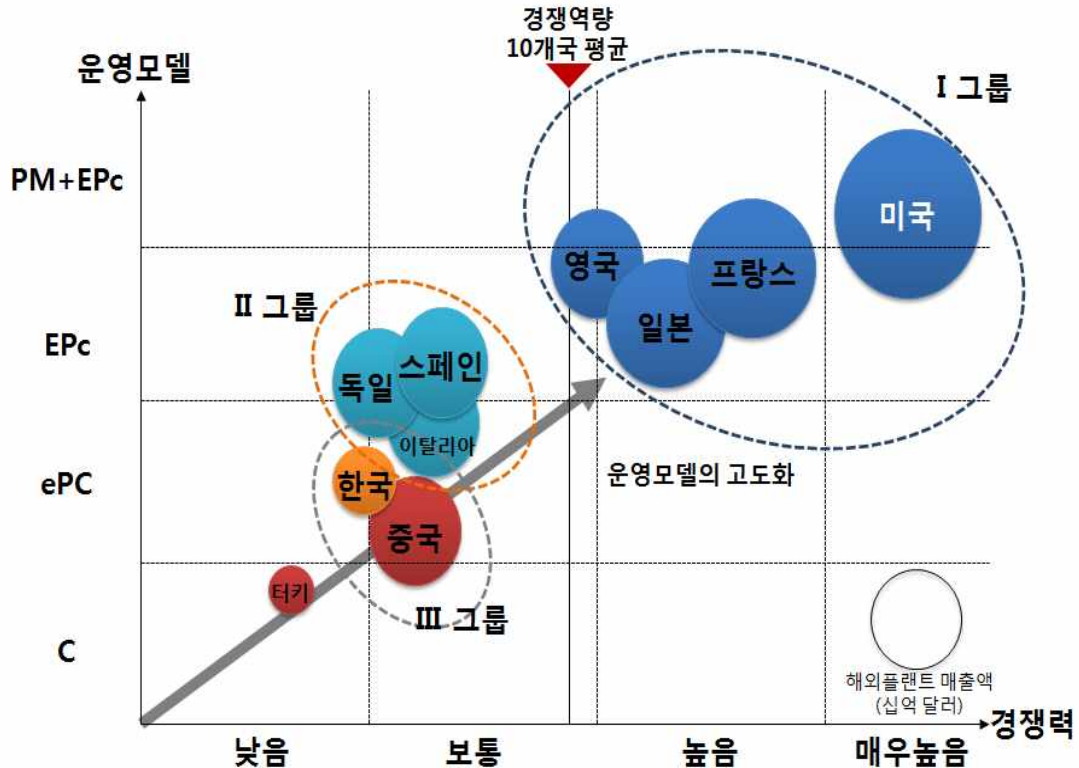
- 이후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2013년~2014년 저가 수주에 따른 대규모 실적 악화를 기록함.
- 해외건설은 해외현장 정세변화, 환율변화, 공기지연, 추가원가 투입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업관리 역량이 매우 중요
 - 외형 확대에 치중해 온 국내 건설사들의 전략으로 인해 중동시장에서 국내 기업간 수주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와 리스크 관리 역량 부족은 실적악화로 이어짐.
- 기본설계 등 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한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70%에 불과한 상황이며, 국산 기자재 사용률도 50% 수준
- 국내플랜트 EPC기업들은 사업관리, 실시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분야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설계 및 FEED를 포함한 핵심영역에서 원천기술부족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이 취약
 - 특히 해외플랜트수주의 비중이 큰 Oil & Gas 플랜트에 대한 원천기술이 가장 취약
 - 프로젝트 전체 공사비에서 기자재(요소부품 포함)가 평균 57%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산화율 평균 약 62%, 국내산 기자재 조달율은 약 41%로 낮은 상황
- 기술경쟁력 확보 및 수익 모델 확대 등의 기술고도화가 필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M&A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세계적으로 기획에서 운영까지 밸류체인 통합이 추세인 상황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은 시공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취약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해외건설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스페인 기업들의 경우 M&A를 통해 기술력 확보, 공종다변화, 진출지역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함.
 - 중장기적으로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단시간내에 경쟁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M&A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해외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지역 비중을 낮추고 20%에 불과한 아시아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
- 해외건설시장에서 아시아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대비 문화성 동질성이 높아 시장 접근이 용이

<국내 주요 건설 부품 경쟁력 및 채택율 현황>

항목		Oil & GAS		해양		정유		석유화학	
수주비중		26.8%		11.3%		33.3%		5.7%	
기자재 비중		56.0%		52.1%		56.8%		52.4%	
비율구분		국산화율	국산 조달률	국산화율	국산 조달률	국산화율	국산 조달률	국산화율	국산 조달률
기계	고정장치	57.2	33.3	54.0	54.0	96.0	51.3	87.1	70.9
	회전장치	45.7	9.9	18.4	18.4	33.7	2.6	31.0	22.0
	패키지류	1.1	0.0	6.5	6.5	86.3	32.1	20.6	0.0
배관	밸브	20.2	11.1	88.8	88.8	100.0	77.9	57.5	57.5
	벌크	45.3	34.6	25.3	25.3	100.0	54.5	93.3	84.1
전기		51.5	24.7	47.8	37.6	100.0	32.7	62.0	54.6
계장		33.6	27.1	46.6	44.5	94.1	41.9	64.0	38.1
기타		57.5	51.2	52.2	49.6	62.3	51.2	92.2	22.7
계		45.1	25.4	36.9	35.8	80.5	43.5	55.7	38.8
항목		발전		담수		전체평균			
수주비중		13.0%		3.6%					
기자재 비중		65.1%		74.8%		57.7%			
비율구분		국산화율	국산 조달률	국산화율	국산 조달률	기자재비중	국산화율	국산조달률	
기계	고정장치	34.7	30.3	71.0	62.0	22.7%	74.5%	47.2%	
	회전장치	32.7	9.4	100.0	59.9	15.6%	36.1%	12.0%	
	패키지류	99.1	34.8	50.7	12.6	11.0%	38.7%	13.2%	
배관	밸브	100.0	67.9	20.5	20.5	6.5%	51.3%	39.5%	
	벌크	95.8	85.4	100.0	100.0	14.0%	70.4%	50.5%	
전기		87.9	86.6	100.0	100.0	10.2%	78.0%	51.9%	
계장		98.5	98.5	56.0	56.0	9.4%	68.5%	40.0%	
기타		100.0	82.9	100.0	100.0	10.7%	66.4%	52.1%	
계		64.4	56.7	74.2	60.8	100.0%	61.5%	40.5%	

자료 : 플랜트산업협회

<주요 국가들의 운영모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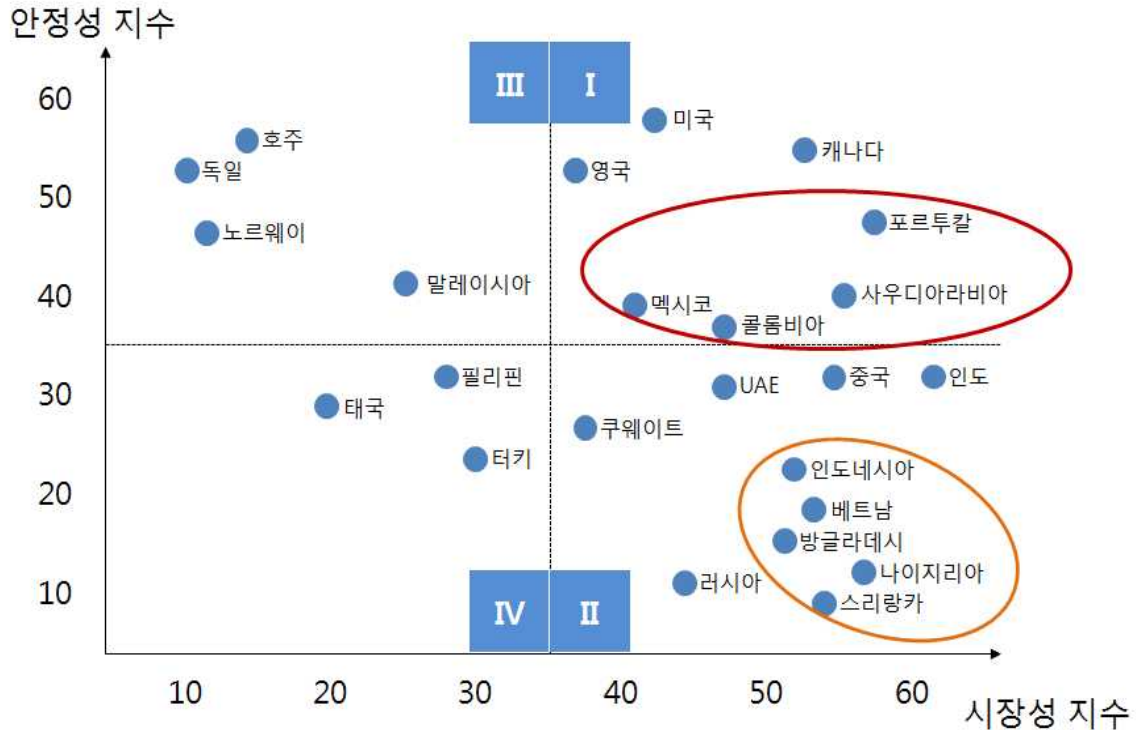
자료 : 플랜트산업 협회

주 : E(Engineering), P(Procurement), C(Construction), PM(Project Management)

- 해외건설산업은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변화 중이며, 금융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선진기업과 경쟁을 위해선 금융역량 확보가 필수적
 - 건설 프로젝트가 대규모화, 복잡화 되면서 전통적인 도급계약방식이 아닌 통합발주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시공자가 금융조달까지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투자개발형사업(PPP)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금융조달 역량 능력 배양이 필요
-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가를 성장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본 결과 아시아가 가장 유망하며, 사우디아라비를 포함한 중동지역은 여전히 매력적인 지역

- 성장성 평가 기준은 시장 규모, 시장 성장률, 경제성장률이며, 안정성 평가 기준은 국가 안정성, 제도적 환경, 건설사업 환경 등임.
- 안정성이 취약하나 아시아 개도국 시장은 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며, 경제성장과 관련된 인프라 분야는 유망 분야
 -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경제개발에 따른 인프라 수요가 연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하지만 Country Risk가 큰 지역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
- 중동시장은 여전히 국내 건설사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이 가장 유망
 -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기반 시설 및 담수화 등 플랜트 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연 8%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
 - UAE 시장도 성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시장대비 뒤처지나, 연 6% 성장을 기록할 전망
-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시장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시장이 유망하나 선진 건설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미국, 캐나다 등은 양호한 경제성장과 셰일가스 개발과 같은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시장 개방도도 양호하나 기술 및 금융경쟁력이 약한 국내 기업들의 진입은 어려운 상황
 - 유럽에서 가장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시장도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플랜트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 건설사들의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멕시코, 콜롬비아 시장도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남미 시장 중 가장 유망한 지역

<진출 유망한 해외건설 시장 동향>



<참고문헌>

1. IHS, "Global Construction Outlook", 2014.
2. Global Insight, "World Construction Outlook", 2014.
3. 해외건설협회, “플랜트 수출에 따른 요소부품 수출확대 전략”, 2012.
4. KDB산업은행, “국내건설기업의 해외건설 경쟁력 진단과 시사점”, 2014.
5. 건설산업연구원, “국가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 2014.
6. 건설산업연구원, “해외 토목·건축시장 선진 기업들의 시장 확대 전략 및 시사점”, 2012.
7. ENR,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2014.